

EARS Series 5

EAI · 시카고국제문제협회 · 중앙일보 대외인식조사II 2006

BBC · 글로브스캔 · EAI · 매일경제 국제현안조사 2005

BBC · 글로브스캔 · EAI · 매일경제 · 한국리서치 국제현안조사 2006

중국의 부상, 위협인가 기회인가 세계여론을 통해 본 중국의 현재와 미래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소장 · 고려대)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EARS Series5

EAI · 시카고국제문제협회 · 중앙일보 대외인식조사II 2006

BBC · 글로브스캔 · EAI · 매일경제 국제현안조사 2005

BBC · 글로브스캔 · EAI · 매일경제 · 한국리서치 국제현안조사 2006



중국의 부상, 위협인가 기회인가 세계여론을 통해 본 중국의 현재와 미래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소장 · 고려대)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EAI · 시카고국제문제협회 · 중앙일보 대외인식조사II 2006
BBC · 글로브스캔 · EAI · 매일경제 국제현안조사 2005
BBC · 글로브스캔 · EAI · 매일경제 · 한국리서치 국제현안조사 2006

대외인식 여론조사 연구팀

EAI 참여교수

이숙중 (위원장 · EAI 국제여론연구패널 · 성균관대)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김태현 (EAI 외교안보센터소장 · 중앙대)
남궁곤 (이화여대)
민병원 (산업대)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 고려대)
이태환 (세종연구소)
정원철 (EAI)
정한울 (EAI)

시카고국제문제협회 참여인사

(Chicago Councils on Global Affairs : CCGA)

Marshall M. Bouton (CCGA)
Steven Kull (CCGA)
Benjamin I. Page (Northwestern University)
Robert Y. Shapiro (Columbia University)
Catherine Hug (CCGA)
Jennie Taylor (CCGA)
Christopher B. Whitney (CCGA)

국제현안 여론조사 연구팀

이내영 (위원장 ·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 고려대)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김태현 (EAI 외교안보센터소장 · 중앙대)
남궁곤 (이화여대)
민병원 (산업대)
이숙중 (성균관대)
이재열 (서울대)
장진호 (연세대)
정원철 (EAI)
정한울 (EAI)

EAI는 리버럴리즘이 동아시아에 확산되어 동아시아가 평화적 지역공동체로 전화되는 날을 고대한다. EAI는 전쟁을 억지하는 안전장치로서 한미동맹을 중심에 놓고 중국 및 일본과 친밀한 국가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평화의 기틀을 다지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전적 미래 전략을 구상한다.

EARS Series 5

중국의 부상, 위협인가 기회인가 : 세계여론을 통해 본 중국의 현재와 미래

발행인 : 이흥구

편집인 : 주영아

출판 : 이상협

발행처 : 동아시아연구원

저자 : 이내영 · 정한울

디자인 : 김민주

발간일 : 2007년 8월 6일

정가 : 5,000원

Copyright © 2007 by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서론 :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각
위협론과 기회론의 사이에서 _ 04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세계여론 : 기대와 우려의 교차 _ 10

1. 중국에 대한 체감온도의 국가별 차이
2.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세계여론의 우려
3.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세계여론의 평가

미래 중국의 진로에 대한 세계여론의 전망 _ 24

1. 경제력 강화는 민주화를 촉진시킬 것인가?
2. 세계화는 중국을 국제사회의 신뢰할만한 이해당사자로 키울 것인가?
3.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필연적인가?

결론 : 이분법을 넘어 복합적 인식으로 _ 35

부록 1. 조사방법 개요 _ 45

부록 2. 분석문항과 빈도표 _ 49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각 :
위협론과 기회론의 사이에서





1990년대 이래 국제정치학계는 ‘중국의 부상이 국제질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서진영 2006; 이태환 2005; 하영선·김병국 2006; Goldstein 2001; Khalizad 2000; Kim 1998; Lampton 2001; Robinson 1998). 중국이 13억 인구의 거대시장을 발판으로 매우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동시에 중국의 군비증강이 계속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표1], [그림1] 참조).

중국의 부상을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하는 현실주의자(realist)들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군사적 팽창으로 이어져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반면 자유주의 전통에서 있는 학자(liberalist)들은 경제적 상호

의존이 양국간 패권 다툼보다는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현실주의자들은 대(對)중국 봉쇄정책(containment)을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로 자유주의자들은 중국을 국제규범과 제도 내로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관여정책(engagement)을 선호하고 있다(Bernstein et al. 1997, 2-9; Goldstein 2001, 858-64; Kim 1998, 7-9; Robinson 1998, 20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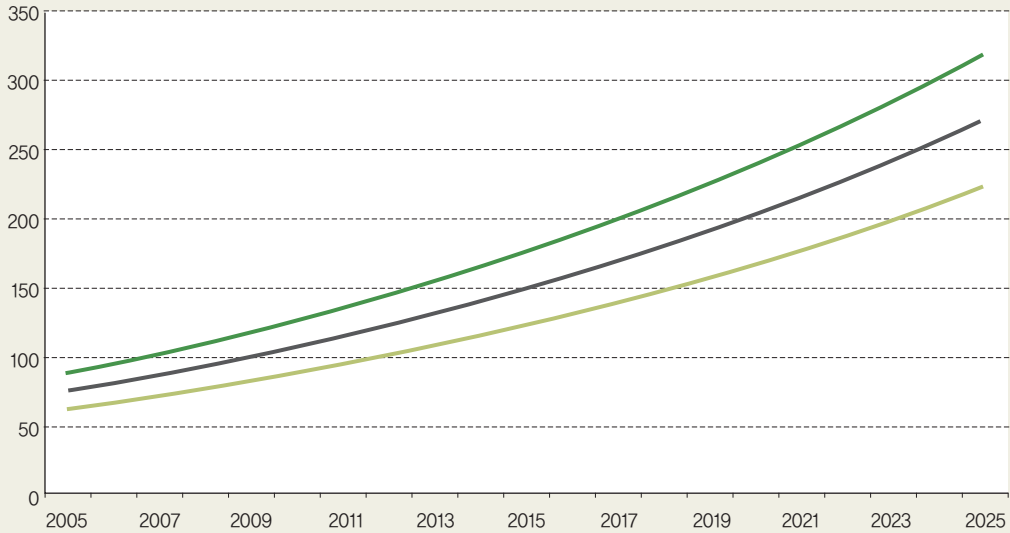
중국의 부상을 둘러싼 양진영의 시각 차이는 다양한 쟁점을 만들어내고 있다([표2] 참조). 첫째, 중국의 객관적 전력평가에 대한 합의조차 쉽지 않다. 중국의 성장이 정치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평화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우선 중국의 군비증강이라는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한편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지속되어

[표1] 중국의 경제성장을 및 전망 (1985-2007)

	1985~1994	1995~2004	2005	2006	2007
중국	10.2	8.2	10.1	10.4	9.4

* 주1) 출처 : 1985-2004년 (서진영 2006, 32), 2005-2007년(홍순영 외 2006, 77), 단위는 %
 2) 2006년, 2007년 수치는 삼성경제연구소 전망치

[그림1] 미국 국방정보부(DIA)의 2025년까지의 중국 국방예산 예측 (단위 : 2005년 기준 Billion \$)



* 주1) 출처 : 미 국방부(2006), 원출처는 Defense Intelligence Agency
 2) 추세선은 중국의 미래 국방예산에 대한 최소, 중간, 최대 추정 결과 (2005년 달러기준)

온 두 자리 수의 군비확대에 주목하는 반면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우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한다. 현실주의자들이 중국의 군사적 팽창속도에 주목한다면 자유주의자들은 미국과의 파워격차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¹⁾

두 번째 논쟁은 국제사회와 미국이 중국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다. 중국의 힘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중국이 세계 및 지역에서 자신의 목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힘을 키우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서진영 2006, 34-36; Bernstein et al. 1997, 6; Deng et al. 1999, 1-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국의 주관적 의도를 파

악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왔다. 중국 정부의 국가대전략 관련 공식문헌을 분석하기도 하고(Goldstein 2001), 역사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중국 대외전략의 기본방향을 귀납적으로 추출해내기도 한다(Burles et al. 2000; Johnston 1995). 최근에는 중국인 혹은 중국지도부의 민족주의 성향이나 권위주의 체제의 속성으로부터 중국정부의 의도에 대한 평가를 유추해 내려고 하고 있다(Dittmer and Kim 1993; Kim 1998). 이와 함께 국가의 전략의도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레짐 및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transnational epistemic community)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의도를 해석하기도 한다(Lampton 2001, 10-11; Robinson 1998, 198). 이렇게 다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의



의도를 해석하는 차원에서도 ‘위협’과 ‘기회’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서로 대립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이분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명료하지 않아 어느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는 힘들다.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해서 매년 20% 가까이씩 증가하는 중국의 군사비 지출을 무시할 수 없으며, 현실주의자라고 해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봉쇄전략만 고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들 주류 패러다임의 이분법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는 주장들이 또 다른 흐름을 이루고 있다. 각 학자별로 편차가 있지만 이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 미중 관계를 갈등과 협력의 이분법이 아닌 대결·경쟁·협력의 복합적 공존의 관점에서 해석(서진영 2006; Lampton 2001; Kim 1998)하고, (2) 방법론적으로는 파워와 이익을 중시하는 주류 패러다임과 행위자의 인식과 정체성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방법을 절충(Suh et al. 2004)하며, (3) 미국이 취해야 할 대(對) 중국 정책의 방향으로 기존의 일방적인 봉쇄 혹은 일방적인 관여보다는 상황에 맞게 위협요인에 대비하며 협력의 여지를 유지하는 헤징전략을 주장한다는 점 등이다 (Sutter 2005).²⁾

중국위협론을 둘러싼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못지않게 미래 중국에 대한 인식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표2]에 정리한 다양한 입장들을 보면 미래 중국의 진로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핵심쟁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 중

국에 대한 불신을 낳는 근원인 중국 권위주의체제는 지속 가능한가? 다시 말해 중국의 경제성장은 민주정부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것인가? (2) 적극적인 대외개방 과정에서 중국은 국제제도 및 규범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 목표를 위해 전술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가? (3)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경쟁은 불가피한 것인가라는 세가지 쟁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주요 이해당사국 국민들의 여론이 어떠한 해답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및 세계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중국의 전력이나 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일차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객관적 평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이해당사국들의 시각이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한 국가의 전략적 인식과 정책방향에 국민여론이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선거가 정치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통제수단으로서 작동하는 한 정책결정자들은 여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김장수 2006; 이내영·정한울 2005; Kull 2004; Shapiro 2004). 특히 최근에는 중국에서조차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 민족주의적 대중여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등장할 정도이다. 따라서 주변 이해당사국의 여론분석은 중국 위협론 평가를 위한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다(Fewsmith et al. 2001; Hao 2006; Lampton 2001).

그러나 중국의 부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도 불

[표2] 중국의 부상을 보는 학계의 논쟁 구조³⁾

	현실주의	자유주의	절충주의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	위협	기회	위협이자 기회
분석대상	힘의 균형	경제적 이익	힘 · 이익 · 정체성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인식	미중 패권경쟁	미중 협력관계	경쟁 · 대결 · 협력의 공존
미중관계의 특징	제로섬	윈-윈	비제로섬
미국의 대중국정책	봉쇄(containment)	관여(engagement)	헤징(hedging)
중국의 능력	· 경제부상으로 미국 추월 · 정치군사적 강화	· 경제부상 · 경제적 상호의존 · 미중간 군사적 격차 유지	· 경제부상과 경제적 격차 · 군사팽창과 군사적 격차
중국의 의도	· 역사문화적 호전성 · 권위주의 정권에 내재된 호전성 · 민족주의의 발호	· 등소평 이후 실용주의 국가 대전략으로 전환 · 정권의 실적에 의한 정통성 확보 중요	· 화평굴기(和平崛起) · 도광양회(韬光養晦) : 강대국과의 협력 · 4불 정책 : 불결맹(不結盟) · 불칭패(不稱霸) · 내정불간섭(內 政不干涉) · 부당두(不當頭) 공존
논거	· 천안문 사태 (1989) · 대만해협 위협 (1996) · 중국의 반미주의 고양	· 투명성 강화(국방백서 등) · 국제적 책임강화 (WTO, NPT 가입 등) · 국제규범 준수	상황별 대응방식의 차이가 존재하 여 위기 및 기회의 사례가 공존
주요 논저	Johnston (1995) Bernstein & Munro (1997) Manning & Montaperto (2000) Goldstein & Murray (2004)	Frieman & Robinson (1991) Segal (1999) Goldstein (2003) O'Hanlon (2004) Shambaugh (2005)	서진영 (2006) Sutter (2005) Suh et al. (2004) Lampton (2007 · 2001) Kim (1998) Robinson (1998) Khalilzad et al. (2000)

* 주1) 화평굴기는 '평화적으로 일어남'을 의미하는 말로서 패권국가를 지향하지 않으면서도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후진타오 체제의 외교노선을 상징한다(서진영 2006, 43).

2) 도광양회론은 천안문 사태 이후 덩샤오핑이 제시한 방어적인 외교노선을 상징하는 말로서 '기회를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이다(이태환 2006, 53).

3) 사불정책은 '동맹을 피하고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서진영 2006, 43).

구하고 주변 이해당사국들이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보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한 국제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1) 중국 및 주요 이해당사국의 인식을 비교하여 중국위협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중국 및 각국 여론이 경쟁과 협력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중국을 보기보다는 절

충적 · 복합적 관점에서 중국의 부상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 미래 중국의 진로에 대한 세가지 핵심쟁점들을 중심으로 세계여론은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는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이하 EAI)이 미



국의 시카고국제문제협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CGA)와 진행한 한국·미국·중국·일본·인도·인도네시아·호주 등 동아태 주요국가 “대외인식 여론조사 II(2006)” 데이터

와 BBC·글로벌스캔(Globe Scan)·동아시아연구원(EAI)·매일경제·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국제현안 여론조사(2005, 2006)” 데이터이다.⁴⁾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세계여론 : 기대와 우려의 교차



1. 중국에 대한 체감온도의 국가별 차이
2.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세계여론의 우려
3.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세계여론의 평가



이 장에서는 현재 중국의 여론 및 주변 당사국의 여론을 분석하여 중국위협론의 실체를 검토한다. 중국위협론에 대한 검토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한다. 첫째는 호감도 차원이다. 중국인 스스로 주변 이해당사국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반대로 주변국 국민들은 중국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양방향에서 살펴본다. 둘째, 중국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두 요인 즉,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 및 군사적 팽창 속도에 대한 세계여론의 평가를 살펴본다. 특히 경제 강대국화가 군사 강대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변국 국민들이 어떤 시각에서 보는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셋째, 중국과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중국 스

스로의 평가와 주변국의 평가를 비교한다. 중국 위협론이 등장한 주요 배경 중의 하나는 중국이 현존하는 패권국가인 미국에 도전함으로써 국제 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세계 여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평판이 어떠한지 비교하되 패권경쟁의 당사국으로 인식되는 중국과 미국국민의 상호인식을 주로 살펴본다. 이들이 양국관계를 상호협력적인 윈윈차원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영합적인 제로섬 관계로 평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현재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세계여론의 시각이 대단히 다면적이고 복합적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1. 중국에 대한 체감온도의 국가별 차이

조셉 나이(Joseph Nye)는 정보화 시대의 주요한 권력자원으로 '매력'을 강조하면서 위협이나 물질적 보상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힘이 중요해진다고 주장한다. 매력이 강하다는 것은 물리적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주변국의 위협인식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Nye 2004, 33-38). 중국 역시 21세기 국가대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력·경제력과 같은 경성권력의 강화와 함께 소프트파워의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이태환 2006, 149).⁶⁾

국가호감도와 국가이미지는 한 나라의 소프트파워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중국위협론을 검토하기 위해서 중국이 주변국가와 국제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 이후 주변 이해당사국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본다. 특히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시계열적으로 살펴본다.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2006년 EAI·시카고 국제문제협회 조사에 참여한 7개국(중국·미

국·일본·한국·인도·인도네시아·호주) 국민의 중국·미국·일본·한국·인도·북한·호주에 대한 호감도 평균을 구해 보면 중국인들이 주변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대상에 따라 매우 상반된 양상을 보여준다. 우선 중국인들은 세계 및 지역에서 자신의 경쟁상대로 간주하는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미국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함께 가장 낮은 점수(51도)를 주었다. 물론 호감도 점수가 50도를 상회하기 때문에 중국인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영토분쟁이나 과거사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36도를 주어 한국인(39도)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비호감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기타 주변국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인 태도(62~73도)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 국민들은 인도·한국·북한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 국가로 나타났으며 호주에 대해서는 미국국민 다음으로 가장 높은 호감도 점수를 주었다. 특히 중국국민들은 UN·WTO·IMF 등 주요 국제제도에 대해서도 매우

[표3] 7개국 국민의 동아태 주요국가 및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호감도 평균 (단위 : 도)⁷⁾

조사국	동아태 주요국가에 대한 호감도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호감도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인도	북한	호주	UN	WTO	IMF
중국	-	51	36	73	62	73	65	76	79	70
미국	40	-	58	44	46	23	69	55	50	44
일본	30	63	-	41	49	7	64	57	55	53
한국	57	58	39	-	56	49	65	70	62	59
인도	54	57	54	48	-	53	52	63	67	55
인니	57	51	63	48	55	48	48	-	-	-
호주	61	62	64	56	62	43	-	-	-	-

*주1) 자료 : EAI · CCGA (2006)

2) 질문은 "Please rate your feelings toward some countries and peopl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one hundred meaning very warm, favorable feeling, zero meaning a very cold, unfavorable feeling, and fifty meaning not particularly warm or cold."(Q333/Q335)

큰 호감을 보여주고 있다(70~79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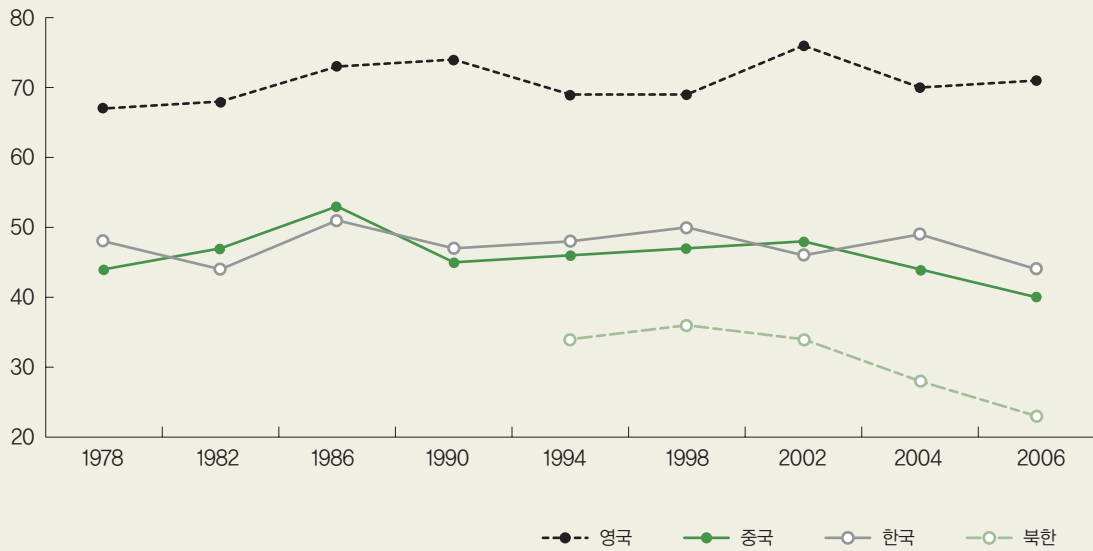
반대로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살펴봐도 국가별 차이가 확연하다. 중국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의 국민들 역시 중국에 대해 상당히 냉담하다. 일본(30도) 및 미국국민(40도)들은 북한 다음으로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이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한국·인도·인도네시아·호주의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 54도~61도 정도로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중국을 두 세 번째로 높은 호감도를 갖고 있는 국가로 꼽아 미국이나 일본 국민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한 나라의 대외 이미지는 그 나라에 대한 외부세계의 일방적인 평가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외부 세계가 맺는 상호관계를 반영하여 형성된다고 한다. 즉 상대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뿐 아니라 상대

국가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Abdelal et al. 2005).⁸⁾ 따라서 미·일 국민들과 중국 국민들 간의 상호호감도가 기타 주변국 국민과 중국 국민 사이의 상호호감도에 비해 냉담한 것은 중국과 미·일 국민들의 경우 서로 상대국이 자국의 국익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⁹⁾.

특히 미국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2]에서 미국인의 주요국가에 대한 호감도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000년 조사에서 48도, 2004년 조사에서 44도, 2006년 조사에서 40도를 기록한 것을 보아 중국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대 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경향과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그림2] 미국인의 주요국에 대한 호감도 변화 (1978-2006) (단위 : 도)



* 주1) 출처 : 크리스토퍼 휘트니 · 정한울 (2006, 122 <그림4>)

결국 중국과 주변 이해당사자들의 상호호감도를 비교해 보면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다투는 중국과 일본의 국민들은 서로 혐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미래 헤게모니 경쟁의 가능성이 있는 미국과 중국의 국민들 역시 상호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 외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비

교적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중국위협론은 호감도 차원에서 볼 때 미·일 국민들에게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국제사회 전체의 현상으로 일반화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세계여론의 우려

중국경제의 성장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중국을 군사적 패권국가로 전환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상호신뢰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2005년 발표한 BBC·글로벌스캔·EAI·매일경제 공동 21개국 조사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대국화와 군사적 강대국화에 대한 각국의 여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¹⁸⁾ 이 자료는 집합적 수준에서 중국이 경제적 강대국으로 성장할 경우와 군사적 강대국으로 성장할 경우 각각에 대한 우호적 여론의 규모를 보여준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을 바라보는 인식과 군사적 팽창을 바라보는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우선 2005년 발표자료 가운데서 21개국의 데이터를 토대로 중국이 경제강국으로 성장하거나 군사강국으로 성장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우호적인 답변을 한 비율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가 [그림3]이다. 인도를 제외한 20개국에서 모두 중국이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호적 여론이 절반에 못 미친 반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강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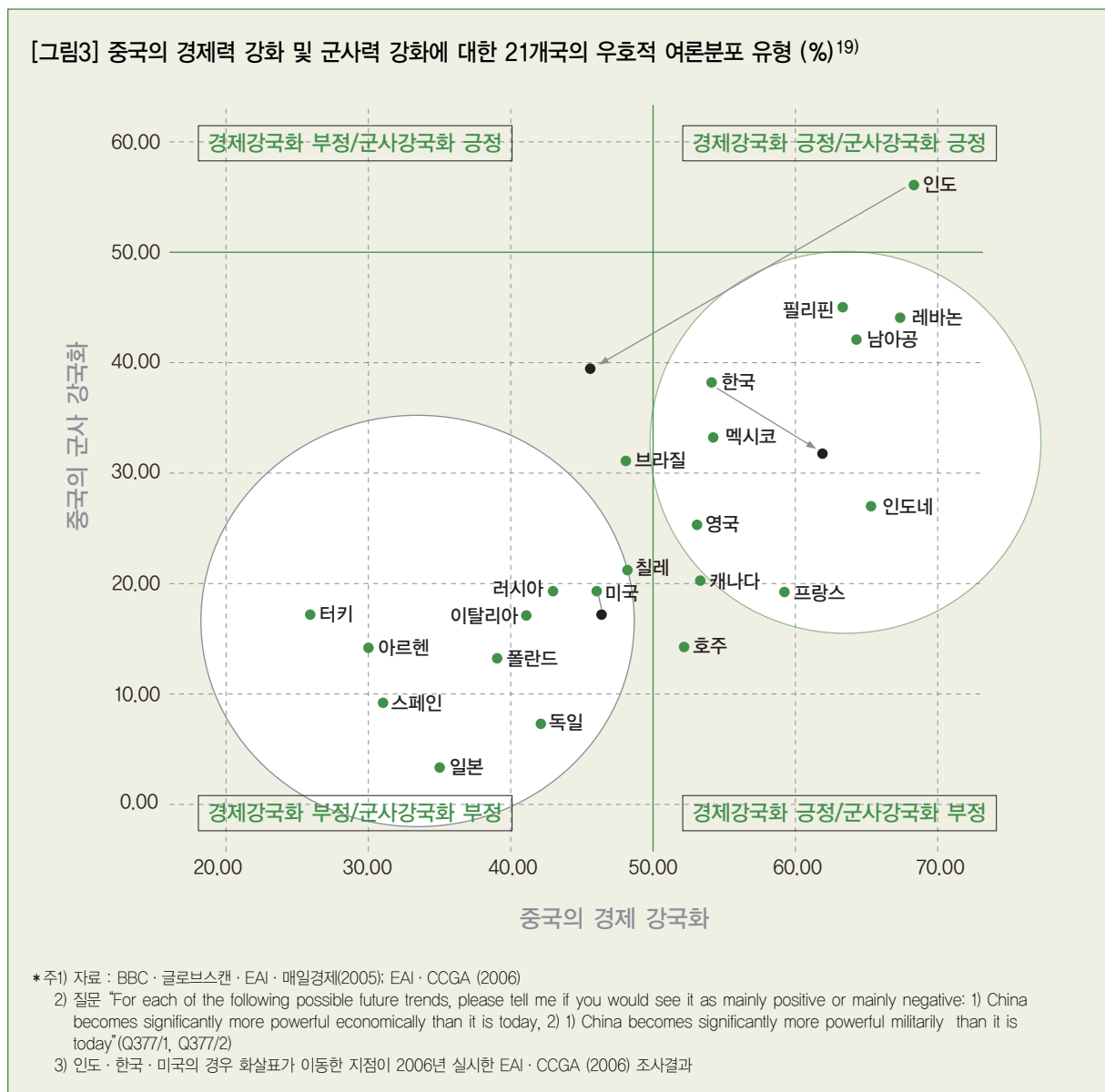
이 반반으로 갈렸다. 20개국 중 미국·일본·독일·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은 경제적 부상과 군사적 강대국화를 모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호주·캐나다·필리핀·인도네시아·프랑스 등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군사적 강국화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이 군사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과는 달리 경제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용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동일 문항을 가지고 2006년 EAI·CCGA 여론조사에서 미국·중국·인도·한국의 여론을 다시 조사했는데 미국과 중국에서의 여론은 큰 변화가 없었고 인도와 한국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EAI·CCGA 데이터의 조사시점이 2006년 6~7월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2005년 발표자료 즉 2004년 말에 실시한 조사시점으로부터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중국의 군사강국화를 우호적으로 보는 여론이 19%로 변동이 없었다. 경제강국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여론도 46%에서 47%로 변해 이를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하기 힘들다. 그림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중국 역시 2005년 발표자료에서 무려 92%가 자신의 경제력 강화를 긍정적으로 보았고 2006년 자료에서는 91%를 기록해 거의 만장일치 수준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군사적 강대국화에 대해서도 2005년 발표자료에서는 중국 국민의 89%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2006

년 발표자료에서는 90%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 2005년 자료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화에 대해 68%에 달했던 우호적 여론이 1년 반 만에 46%까지 떨어졌고, 군사적 강화에 대해서도 지지비율이 56%에서 40%로 큰 폭으로 하락했음을 보여준다.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친디아의 부상' 이 양국 사이에서는 경쟁 의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추

[그림3] 중국의 경제력 강화 및 군사력 강화에 대한 21개국의 우호적 여론분포 유형 (%)¹⁹⁾





론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군사강국화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38%에서 31%로 줄어 한국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 반면 경제강국화에 대해서 우호적 여론이 54%에서 59%로 오히려 늘어 중국의 경제성장을 한국경제의 기회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종합하면 중국의 군사적 부상 뿐 아니라 경제적 성장까지도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입장은 중국과 경제적 경쟁상대의 위치에 있거나 중국의 경제력 강화가 결국 군사적 패권의 강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진 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처럼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군사적 부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들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자국 경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아래 실용적인 정경분리(政經分離)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중국국민의 90%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경제강국화·군사강국화의 의지가 외부세계의 양분된 여론과 충돌할 경우 중국 내부에서는 외부세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외부 세계에서는 중국위협론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개인적 수준의 미국 여론조사 자료를 통해 중국경제에 대한 인식이 중국위협인식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4]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태도가 중국위협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표5]는 중국·인도와의 경제협

력에 대한 태도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바라보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우선 [표4]에서 중국이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강해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일수록 중국의 위협을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중국이 세계패권국가로 부상하는 것이 다음 10년 간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7%에 그친 반면 중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9%로 그 수치가 훨씬 높았다. 그러나 ‘심각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위협’이라는 답변까지 고려한다면 중국의 경제성장을 우호적으로 본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국민들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가 중국의 군사패권화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거나 최소한 지연시킬 수는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5]에서 보듯이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대해 미국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시아 신흥강국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할수록 중국의 군사도전에 대한 우려의 강도가 약화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역확대를 위해 새로운 경제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디아와의 경제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군사강국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73.5%에 그친 반면 경제협력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우려한 비율이 88.2%에



달했다. 이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국가간의 경쟁과 갈등을 완화시킨다는 자유주의적 시각이 개인인식 수준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전체적으로 국제사회는 중국의 군사적 패권화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제력 강화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자유주의 이론이 주장하듯이 경제협력·경제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일수록 군사패권화에 대해 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경제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중국위협인식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전체 미국국민들의 시각 자체가 기대와 우려(568명 대 583명)로 양분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미국국민들처럼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양극화되어 있을 경우 경제협력의 진전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폭은 상당히 제한받을 수 있다(김성한 외 2006, 204-5). 이것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양면적이며 복합적인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표 4] 미국국민의 중국의 경제력 강화에 대한 태도와 중국위협인식 교차표

		10년 내 도래할 위협 : 중국의 세계패권국 부상			합계
		심각한 위협	심각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위협	전혀 중요한 위협이 아니다	
중국의 경제력 강화에 대한 평가	긍정적	163 (28.7)	341 (60.0)	62 (10.9)	568 (100.0)
	부정적	256 (43.9)	286 (49.1)	36 (6.2)	583 (100.0)
Total		437 (35.6)	666 (54.3)	105 (8.6)	1,227 (100.0)

* 주1) 자료 : EAI·CCGA(2006), Q377/1(경제강대국화 평가)과 Q3/1(중국부상 위협평가)

2) 모름/모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합계는 모름/무응답까지 포함한 전체 합계

3) 카이제곱 검정 결과 : $p < 0.01$

4) 셀 안의 수치는 빈도수, 괄호안의 수치는 백분율을 의미

5) 질문 "Below is a list of possible threats to the vital interests of [Survey Country] in the next ten years. Please select whether you see this as a critical threat, an important but not critical threat, or not important at all. 1) The development of China as a world power." 경제강대화 평가문항(Q377/1)은 [그림6]의 그림 주2를 참조

[표5] 미·중·인도 간 경제협력에 대한 태도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평가 교차표²⁾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평가		합계
		긍정적	부정적	
무역확대를 위한 미·중· 인도의 협력	매우 중요	98 (23.0)	314 (73.5)	427 (100.0)
	약간 중요	101 (16.1)	508 (81.2)	626 (100.0)
	전혀 중요하지 않음	12 (10.1)	105 (88.2)	119 (100.0)
Total		212 (17.3)	942 (76.8)	1,227 (100.0)

* 주1) 자료 : EAI · CCGA(2006), Q323(무역확대를 위한 협력)과 Q377/2(군사력 강화)

2) 모름/ 모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합계는 모름/무응답까지 포함한 전체 합계

3) 카이제곱 검정 결과 : $p < 0.01$

4) 셀 안의 수치는 빈도수, 괄호안의 수치는 백분율을 의미

5) 질문 "Q323. In your opinion, how important is it that the U.S., China, and India work together on the following: 2) Expanding trade"



3.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세계여론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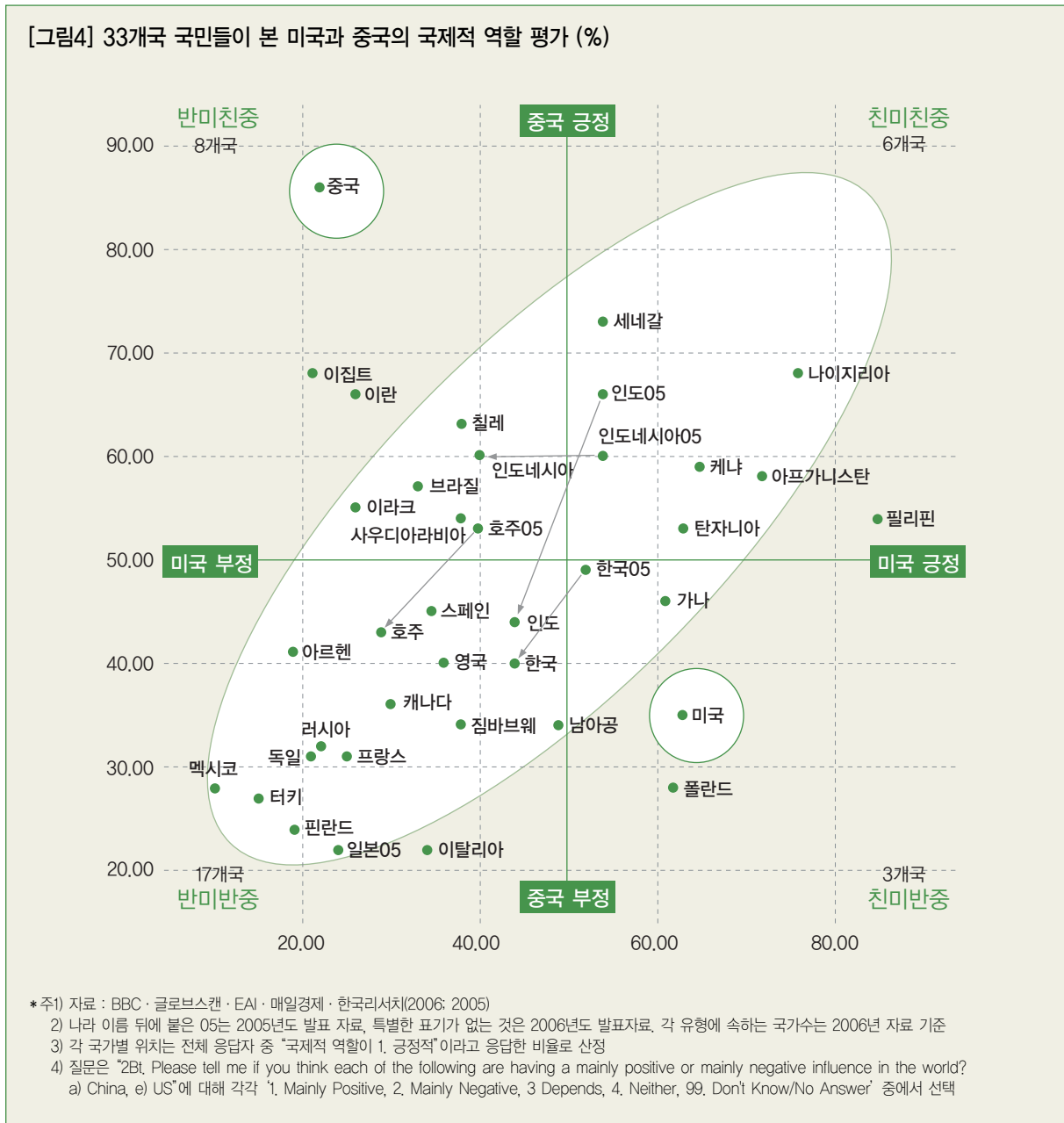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현재 중국의 국제적 역할이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는지 양 국가에 대한 국제적 평판을 비교해 본다. 특히 중국 자신이 본 중국과 외부 세계 그 중에서도 미국이 바라보는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의 격차⁹⁾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2005년과 2006년에 BBC·글로벌스캔·EAI·매일경제·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국제여론조사 데이터를 살펴본다. 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중국과 미국 각국이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을 미국과 중국 두 축으로 교차시켜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친미친중 : 미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2) 친미반중 : 미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 (3) 반미친중 : 미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4) 반미반중 : 미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국가별 여론을 분류할 수 있다.¹⁰⁾

[그림4]를 보면 우선 조사에 포함된 35개국 중에서 이란·이라크 등 중동국가, 인도·인도네

시아·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 브라질·칠레와 같은 남미국가, 여기에 최근 중국이 에너지 외교로 공을 들이고 있는 나이지리아·케냐·세네갈·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의 여론이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을 포함한 영국·프랑스·독일 등 서구의 대다수 국가와 러시아·일본·한국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은 중국의 리더십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¹¹⁾

이 분석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 국민과 중국국민은 두 나라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가를 영합적(Zero-sum)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국인 스스로의 자기 이미지를 보면 90%에 육박하는 중국인들이 “중국이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 국제질서의 패권국가인 미국에 대해서는 불과 22%만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여 강한 ‘반미’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다른 나라 국민들로서는 중국국민들이 미국패권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높으며 이러한 조사 결과 자체만으로도 강한 우려감을 가져오기에

[그림4] 33개국 국민들이 본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역할 평가 (%)



충분하다. 미국국민들 역시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서는 60%를 상회하는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불과 35%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양국 국민들이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역할 평가에서 서로 제로섬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인식의 간극이 분

명함을 보여주고 있다.

양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의 경우에서도 호감도 평가와는 달리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서는 비판적 여론이 강하거나 늘고 있어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과 2005년의



발표자료를 통해 여론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인도·한국·호주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 나라의 경우 중국이 관계개선에 상당히 공을 들여온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였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결과이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이 호감도 평가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위협론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4]가 보여주는 또다른 특징은 대다수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역할을 영합적 관계(Zero sum)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네 개의 유형 중에서 친미반중형과 반미친중형은 양국관계를 영합적 관계로 보는 유형으로, 친미친중형, 반미반중형은 비영합적 관계로 보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친미친중형은 비영합적 관계 중에서도 양국관계를 윈-윈이 가능한 관계로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6년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친미반중형에 미국·폴란드·가나 등 3개국, 반미친중형에 중국·브라질·이라크·이집트·이란·인도네시아·사우디·칠레 등 8개국이 속해 미중관계를 영합적 관계유형으로 보는 국가가 총 11개국이다. 양국관계를 윈-윈 게임으로 보는 친미친중형은 나이지리아·세네갈·아프가니스탄·케냐·탄자니아·필리핀 등 6개국에 불과했지만, 반미반중형에는 남아공·독일·러시아·멕시코·스리랑카·스페인·아르헨티나·이탈리아·인도·영국·짐바브웨·캐나다·터키·프

랑스·핀란드·한국·호주 등 17개 국가가 속했다. 친미친중형과 반미반중형을 미중관계를 비영합적 관계로 보는 유형으로 본다면 33개국 중 23개국이 양국을 대립적 관계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한 국가 전체의 집합적 자료(aggregate data)의 응답비율을 가지고 개인의 정치적 특성을 추론하는 생태주의적 오류(ecological fallacy)를 범할 가능성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유형중에서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 미국, 한국과 영국의 개인자료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가유형을 확인한다.¹²⁾

[표6]은 4개국 자료를 가지고 중국과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응답을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집합자료에서 친미반중형의 대표국가였던 미국의 응답자들 중에서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비율이 31.9%로 가장 높다. 반면 반미친중형의 대표국가였던 중국에서는 중국의 국제적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국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무려 56.6%에 달했다. 양국국민의 가장 많은 응답유형은 양국관계를 영합적 관점에서 보는 응답이었다. 반면 집합자료 분류에서 미중관계를 비영합관계로 보는 국가로 분류되었던 영국과 한국의 경우 개인자료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역할을 모두 부정적으로 보거나 모두 긍정적으로 보는 유형의 응답자들이 50%를 넘었다.

결국 집합자료와 개인별 자료를 종합해 보면



우선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국민들은 다수가 양국관계를 대립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국민들이 드러낸 미국과 중국에 대한 비대칭적인 평가의 강도를 보면 미국은 물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경계심을 갖게 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미국이나 중국의 조사 모두에서 친미친중의 인식이 네 개 유형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중국 응답자의 18%, 미국 응답자의 24.7%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두 당사국 내에서조차 양국의 관계가 상호이득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국과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를 공히 부정적으로 보거나 공히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볼 때 중국을 미국의 대안으로 보거나 두 나라를 경쟁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다만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이 미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보다는 높았는데 이러한 점도 중국위협론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한미동맹 우선론과 중국대안론 간의 경쟁에 주목해 온 한국에서도 친미반중여론(16.8%)이나 반미친중여론(19.5%)은 상대적으로 소수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이는 기존의 이분법적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6] 미국·중국·영국·한국 국민이 본 중국과 미국의 국제적 역할 평가 유형

(1) 미국조사(n=1,001)

국제적 역할	미국 부정	미국 긍정	기타 무응답
중국 긍정	반미친중 93(9.3)	친미친중 247(24.7)	
중국 부정	반미반중 178(17.9)	친미반중 319(31.9)	
기타 무응답			164(16.3)

(2) 중국조사(n=1,863)

국제적 역할	미국 부정	미국 긍정	기타 무응답
중국 긍정	반미친중 1054(56.6)	친미친중 335(18.0)	
중국 부정	반미반중 52(2.8)	친미반중 50(2.7)	
기타 무응답			372(19.9)

(3) 영국조사(n=1,001)

국제적 역할	미국 부정	미국 긍정	기타 무응답
중국 긍정	반미친중 179(17.9)	친미친중 204(20.4)	
중국 부정	반미반중 310(31.0)	친미반중 113(11.3)	
기타 무응답			195(19.5)

(4) 한국조사(n=1,000)

국제적 역할	미국 부정	미국 긍정	기타 무응답
중국 긍정	반미친중 168(16.8)	친미친중 236(23.6)	
중국 부정	반미반중 350(35.0)	친미반중 195(19.5)	
기타 무응답			52(5.2)

* 주1) 자료 : BBC·글로벌스캔·EAI·매일경제·한국리서치 (2006)

2) 셀 안의 수치는 해당 응답의 빈도수, 괄호 안은 백분율(%)

3) 질문 "Please tell me if you think each of the following are having a mainly positive or mainly negative influence in the world? a) China, e) US" (문항번호 2Ba(중국), 2Be(미국)에 대해 각각 '1. Mainly Positive, 2. Mainly Negative, 3 Depends, 4. Neither, 99. Don't Know/No Answer' 중에서 선택. 표의 '기타 무응답'은 위의 보기 중 3, 4, 99 응답을 합해서 계산함.

미래 중국의 진로에 대한 세계여론의 전망



1. 경제력 강화는 민주화를 촉진시킬 것인가?
2. 세계화는 중국을 국제사회의 신뢰할만한 이해당사자로 키울 것인가?
3.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필연적인가?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중국의 급부상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이해당사국의 국민들이 중국을 일방적인 위협대상이나 일방적인 협력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중국이라는 존재가 세계와 주변국에 주는 의미가 양면성과 복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필자들의 진단이 미래 중국의 진로를 예측함에 있어서도 타당성을 가질 것인가? 이 장에서는 중국의 미래 진로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핵심 쟁점들에 대한 중국 자신과 외부세계가 갖고 있는 인식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 경제력 강화는 민주화를 촉진시킬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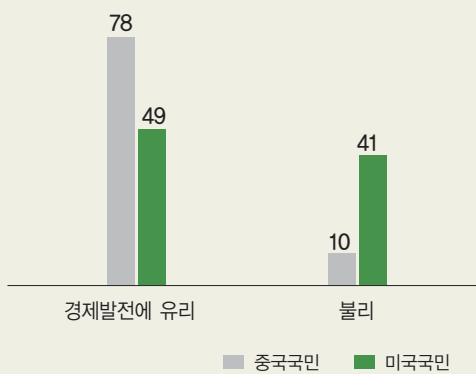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핵심적인 쟁점은 경제적 성장이 정치적 자유화 혹은 민주화로 이어질 것인가의 문제이다 (Freidman et al. 2000; Gilley 2006; Keidel 2006; Pei 2002). 즉 경제적 성장이 민주주의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근대화 이론의 고전적 명제가 중국의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의 논쟁이다. 리(Li 2006)나 키델(Keidel 2006)의 주장처럼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현 체제의 안정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페이(Pei 2006)의 주장처럼 중국정권 내부의 부패가 심화되고 소득불균형이나 사회불안, 환경파괴가 심화되면서 정치적·경제적 쇠퇴가 도래할 경우 장기간의 정치적 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비판론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길리(Gilley 2006)는 “정치적·경제적 쇠퇴도 민주주의를 막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이 문제가 중국 위협론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이 비민주적인 정치체제로부터 비롯된다는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²¹⁾ 이러한 민주평화

론(democratic peace theory)의 입장을 따를 경우 중국이 아무리 자본주의적 시장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더라도 중국공산당 중심의 일당체제를 유지하는 정치적 실험이 계속되는 한 중국의 존재는 위협하고 불안해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중국정부가 인민들로부터 받는 정치적 지지와 신뢰가 굳건할 경우 현 체제로부터 민주화로의 전환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위협론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현 중국정부가 경제성장이라는 실적에 의해 정통성을 유지하는 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이 난제를 푸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²²⁾

여기서는 중국국민들이 현 정부의 정치경제 시스템에 대해 얼마나 정치적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 체제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전망을 하고자 한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중국정부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현 권위주의 정부의 정치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체제안정성을 평가하고 예측하는데 있어

[그림5] 미국·중국국민이 본 중국정부의 정치경제 시스템 운영 평가(%)



* 주1) 자료 : EAI · CCGA(2006)

2) 질문 "When it comes to economic development do you think the wa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manages its economy and its political system is more of an advantage or more disadvantage for China?"(Q160)

3)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의 강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본다 (Erikson et al. 2005).

[그림5]를 보면 중국국민들의 78%가 현 중국 정부의 정치경제시스템 운영에 만족하고 있으며 단 10%만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정부 및 중국 정치경제시스템 운영에 대한 중국인민의 전폭적 신뢰가 유지되는 한 중국 정치체제의 안정성에는 이상이 없어 보인다. 이는 당분간 중국의 경제성장이 정치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데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문제를 보는 미국인의 시각은 중국인의 시각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미국국민들이 중국체제의 경제적 효율성을 인정하는 비율은 49%로 중국인들의 응답률보다 크게 낮았으며, 반대로 경제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시각은 41%로 중국국민 응답의 네 배 이상에 달했다.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있다는 하지만 정치적 경쟁 없이 일당지배체제로 운영하는 중국의 정치경제시스템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호자를 자처해 온 미국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비판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국민들조차 과반수 가까운 응답자가 중국정부의 정치경제시스템 운영이 경제발전에 효율적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보다 의미있어 보인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선도국가인 미국에서조차 과반수 이상이 중국 정치경제시스템의 경제적 효율성만큼은 인정할 정도로 경제적 실적이 정치시스템의 정통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림5]는 매년 10%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의 실적이 중국국민들의 정치적 불만을 상쇄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경제실적이 따라주지 못할 경우 중국국민은 현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정치적 불만과 저항을 표출할 것이라는 가설도 세워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결국 중국의 경제적 실적에 대한 평가가 중국정부에 대한 중국국민의 정치적 신뢰와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에 대한 경험적 분석결과를 [표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7]에서 보면 중국이 경제적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에 대해 낙관론을 가진 사람들은 현 정부의 운영시스템이 경제발전에 유리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무려 79.9%에 달한 반면 중국이 경제적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현 정부운영시스템이 경제발전에 유리하다



고 평가한 비율이 54.3%로 둘 사이에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력의 지속적인 신장이 현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력 강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조차 과반수 이상(54%)이 현 시스템이 경제발전에 유리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중국국민의 지지는 굳건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현재의 국민적 지지가 지속된다고 보면 중국 정부 시스템의 내구성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이며 민주화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중국위협론 평가에 갖는 함의는 중국의 경제성장은 서구사회가 중국에 대해 품고 있는 근본적인 체제불신마저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미국 국민들의 49%가 중국정부 운영시스템의 경제적 효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경제의 활력에 대한 부러움이 작용한 것일뿐 아니라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표7] 중국국민의 중국경제성장 평가와 정부운영시스템의 경제적 효율성 평가

		정부운영시스템의 경제적 효율성 평가				합계
		경제발전에 유리	경제발전에 불리	둘 다 아님	모름/무응답	
중국의 경제력 강화에 대한 평가	낙관적	1,445 (79.9)	155 (8.6)	55 (3.0)	153 (8.5)	1,808 (100.0)
	부정적	75 (54.3)	39 (28.3)	8 (5.8)	16 (11.6)	138 (100.0)
	모름/ 무응답	25 (45.5)	6 (10.9)	8 (14.5)	16 (29.1)	55 (100.0)
	Total	1,545 (78.0)	200 (10.0)	71 (3.5)	185 (9.2)	2,001 (100.0)

* 주1) 자료 : EAI · CCGA(2006), Q377/1과 Q160의 교차분석

2) 카이제곱 검정결과 : p<0.01

3) 셀안의 수치는 빈도수, 괄호안의 수치는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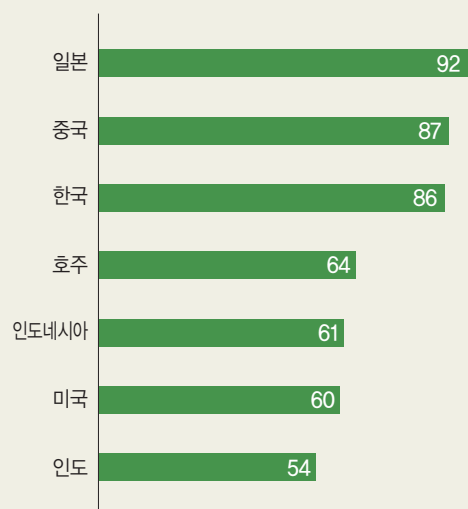
2. 세계화는 중국을 국제사회의 신뢰할만한 이해당사자로 키울 것인가?

중국의 미래를 짐쳐볼 수 있는 또 다른 쟁점은 과연 현재 세계경제 및 국제제도에 적극 편입하고자 하는 중국의 시도들이 중국 내에 국제 규범을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인지 아니면 국제제도에 무임승차하면서 결국에는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인가로 집약된다(Lardy 2002; Economy 2001). 사무엘 김은 국제규범은 ‘정통성’을 통해 개별 행위자를 제도에 순응시킬뿐 아니라 국제적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해당국가의 정책결정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것으로 판단한다(Kim 1998).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결국 중국 스스로가 국제 규범과 제도에 가입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뿐 아니라 그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의무에도 자발적으로 순응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라디(Lardy)는 중국의 WTO 가입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정부 지도부가 국제규범에 적극적으로 순응해왔고 앞으로도 기존제도의 틀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해 나아가고자 한다는 점을 논증한 바 있다(Lardy 2002). 반면 이코노미(Economy)는 중국은 국제제도에 대한 태도에서 양면성과 최대-최소원칙(maxi-mini

principle)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중국은 국제질서에 적극 참여하면서 동시에 국제규범에 대해서는 권리와 혜택은 최대한 누리면서 의무와 책임은 최소화하려는 무임 승차자”라고 주장한다(서진영 2006; Economy 2001, 230-353).

중국국민들 역시 중국정부와 마찬가지로 국제

[그림6] 세계화가 자국에 미친 영향 : “긍정적”(%)²³⁾



* 주1) 자료 : EAI · CCGA(2006)

2) 질문 "Do you believe that globalization, especially the increasing connections of our economy with others around the world, is mostly good or mostly bad for [survey country]?(Q165)



질서로의 개방을 원하고 국제규범에 대한 순응적 태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한다. [그림6]에서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인하면 중국은 응답자의 87%가 세계화가 중국에 이익이 된다고 봄으로써 일본(92%), 한국(86%)과 함께 세계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의 하나로 꼽힌다. 세계화를 주도하는 미국·호주의 경우 응답자의 60%만이 긍정적으로 세계화를 바라보고 있고, 인도(54%), 인도네시아(61%) 응답자들도 중국의 세계화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국민들은 국제기구와의 공동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국가는 국제문제를 다룰 때 UN의 결정이 자국의 선호와 배치되더라도 UN의 틀 내에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한 5개국 국민들 중에서 중국국민이 가장 높은 78%의 동의를 했다. 일본국민이 65%, 미국국민이 60%로 그 뒤를 이었고, 한국(48%)과 인도(44%)의 경우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또한 중국정부가 세계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유소작위(有所作為)의 외교노선을 표방한 것과 맥을 같이하며 중국국민들도 세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하고 있다.²⁴⁾ 중국의 경우 무려 87%의 응답자들이 세계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중국정부나 중국국민들이 국제규범에 대한 순응의지 없이 전술적으로만 이용하려 한다는 평가는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질서 하에서 책임 있는 국

[표8] 국제규범에 대한 순응 : “동의”(%)

	우리나라는 국제문제를 다룰 때 우리의 선호와 다르더라도 UN의 틀 내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세계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여 불리한 판정이 내려졌을 때 이를 따라야 한다.
중국	78	87	58
미국	60	69	73
일본	65	74	64
한국	48	81	37
인도	44	56	37

*주1) 자료 : EAI · CCGA(2006)

2) Q15. "Please select whether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When dealing with international problems, [survey country] should be more willing to make decisions within the UN even if this means that [survey country] will sometimes have to go along with a policy that is not its first choice."

Q45.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to rule on disputes over trade treaties. If another country files a complaint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it rules against [survey country], as a general rule, should [survey country] comply with that decision or not?"

Q300. "Do you think it will be best for the future of the country if we take an active part in world affairs or if we stay out of world affairs?"



가로서 자기 책임을 다해 나가는 데 몇 가지 한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시겔(Segal 1999)과 서진영(2006)의 지적처럼 중국이 인구와 국토, 경제규모 면에서 대국인 것은 분명하지만 1인당 GDP 등 객관적 지표로 보면 여전히 개발도상국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국제사회 특히 동아시아지역에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에 비해 이를 감당할 능력의 문제가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여론을 살펴보다라도 중국인들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편입하여 순응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양면적 태도와 무임승차의 가능성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중국 국내법과 상충하는 WTO 룰에 의해 제소되었을 경우 WTO 결정을 따라야 할지’를 묻는 문

항에 대해서는 중국국민의 58%만이 지지를 보여 앞의 두 문항에 대한 답변에 비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37%)이나 인도(37%)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73%)과 일본(64%)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결과이다. 이러한 태도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의도는 큰 데 반해 국민들이 국제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는 수준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중국이 무책임하다거나 일방적으로 국제질서에 편승하고자 한다는 평가는 과장된 것이 사실이지만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서진영 2006, 38-39; Segal 1999,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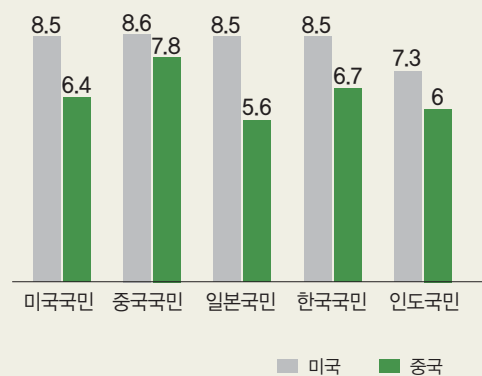
3.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필연적인가?

현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격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림7]에서 보듯이 미·중 양국이 현 세계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결과는 미·중 양국국민들을 비롯한 주요 이해당사국 국민들이 확실히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¹³⁾ 특히 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일본국민들이 특히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격차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중국국민 스스로는 7.8점을 주어 다른 나라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 평가하는 것보다 자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영향력(8.6점)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밖의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큰 격차로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이 중국의 영향력을 압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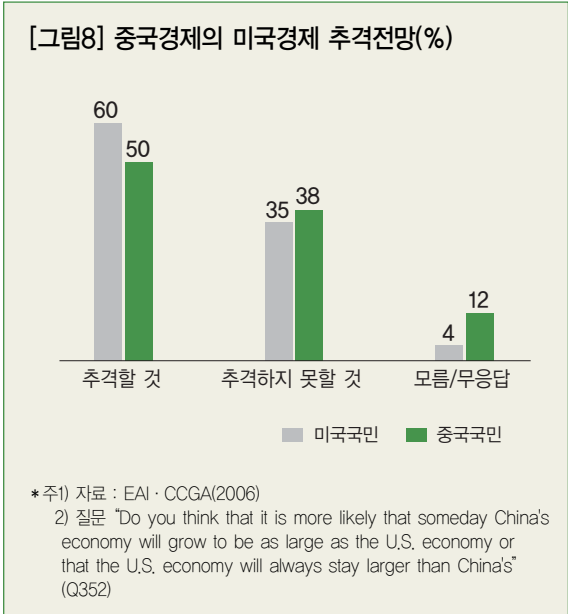
그러나 대부분의 패권경쟁론자 간에는 현 시점보다는 상당 기간 시간이 흐른 미래의 시점에 미·중 갈등관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인정하는 국제여론이 향후에

도 미국 주도의 질서가 지속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위협론의 주된 근거 중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중국경제의 미국경제에 대한 추격가능성을 미·중 양국 국민의 인식을 통해 보기로 한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보면 중국위협론이 가정하듯이 미국과 중국국민 대다수는 중국경제가 미국경제를 추격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림8]에서 중국경제가 미국경제를 따라잡을 것으로

[그림7] 주요국이 본 미국과 중국의 세계적 차원의 영향력(단위 : 점)¹⁴⁾



* 주1) 자료 : EAI · CCGA(2006)
 2) 질문 "I would like to know how much influence you think each of the following countries has in the world" (Q345)
 1) US, 5) China



보는가 물어보았을 때 당사국인 미국국민과 중국국민 모두 과반수 이상이 중국경제가 미국경제를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미국국민 60%, 중국국민 50%). 특히 중국국민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미국국민들이 미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추격당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는 미국국민들 스스로 중국의 성장에 대해 경제적 자신감을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미국추적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이를 위기라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기회라고 판단할 것인가?

[표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질문에 대한 6개국 국민들의 응답결과를 보면 중국이 세계적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아시아의 지정학적 위협요인인 한반도의 불안정성과 갈등, 최근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테러리즘, 에너지 위기, 21세기의 새로운 위협으로 평가되는 AIDS 등의 질병 문제에 대한 답변과 비교해 보면 중국의 부상이 향

후 10년 내에 자국의 국가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는 의견은 과반수에 못 미쳤다 (25~49%).¹⁵⁾

미국국민들조차 한반도 갈등상황을 심각한 응답으로 뽑은 비율(38%)과 비슷한 수의 응답자들(36%)만이 중국의 부상이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¹⁶⁾ 이는 미국국민들이 현재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도 중국의 부상이 앞으로 10년내에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평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미국과 중국 양국민들은 서로를제로섬의 상극적 관계로 이해하는 경향이 크고, 특히 중국국민들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자신감은 외부세계로 하여금 중국에 대해 위협감을 갖게 할 여지가 크다. 실제로 중국의 국제적 역할 평가에서 조사대상 33개국 중 20개 국가에서 중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및 중국 내에서조차 미국과 중국이 국제적으로 서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윈-윈관계라는 응답비율이 적지 않았다. 또한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의 부상이 자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비율이 과반수에 못 미칠 뿐 아니라 다른 위협요인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잠재적으로나 현재에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국가들은 대체로 중국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국과 중국 모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에도 미국에 비해서 중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리



하면 주요 이해당사국 국민들의 여론에는 중국 의 부상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요인 뿐만 아니라 이를 상쇄하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9] 향후 10년 이내에 국익에 위협이 될 요인에 대한 6개국 평가 (%) ¹⁷⁾: “심각한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

	중국의 세계강국화	한반도 갈등	국제테러리즘	에너지수급의 차질	지구온난화	AIDS, 조류독감 등 전염병의 창궐
중국	-	23	42	54	47	65
미국	36	38	74	59	46	49
일본	45	67	76	76	82	70
한국	49	29	49	64	67	59
인도	43	29	65	43	51	60
호주	25	34	73	51	68	58

* 주1) 자료 : EAI · CCGA(2006)

2) 질문 “Below is a list of possible threats to the vital interest of [survey country] in the next 10 years. For each one, please select whether you see this as a critical threat, an important but not critical threat, or not an important at all(Q3). 1) The development of China as world power, 4) International terrorism, 7) Global warming, 8) AIDS, avian flu, and other potential Epidemics, 10) Disruption in energy supply 12)Instability and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r”에 대한 응답비율

결론 : 이분법을 넘어 다면적 인식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첫째, 현 시점에서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중국 자신과 외부세계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위협론의 실체를 평가하고 미래 중국의 진로에 대한 예측을 제시하고자 했다. 둘째, 본 연구는 중국여론조사 자료와 국제여론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중국위협론에 대한 다양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연구가 대단히 취약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중국과 인도의 부상을 주제로 진행한 EAI·CCGA 대외인식 여론조사 자료(2006)와 BBC·글로벌스캔·EAI·매일경제·한국리서치의 국제현안 여론조사 자료(2005, 2006)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들이 대체로 극단적인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분석의 결과 중국내부 및 외부세계의 여론은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현실주의 혹은 자유주의가 가정하듯이 일방적인 위협이나 일방적인 기회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절충주의적 해석이 주장하듯이 중국의 부상이 갖고 있는 이중적·양면적·복

합적인 의미가 중국내부 및 외부세계의 여론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현실주의에 기초한 중국위협론의 가정이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거나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국인들은 지역의 최대경쟁국인 일본이나 세계적인 패권국가인 미국을 제외하면 대체로 주변국가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또한, 현실주의의 주류 패러다임과 달리 미중갈등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국민들 공히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태도가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중국여론에 대한 분석의 결과 중국국민들은 군사대국화에 대한 지지 못지않게 국제사회로의 편입에 대해 강한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개방경제 하에서 경제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중국국민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하려고 하고 있으며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의 헤게모니 경쟁 능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미국을 추격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미국과의 격차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 스스로의 인식과 외부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되는 위협요인 역시 발견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내부에서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더 강력한 힘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 주변세계는 중국이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추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둘째, 현재 중국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치경제 관리시스템에 대한 중국 국민의 자신감과 신뢰는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외부세계가 기대하는 민주적 정부로 쉽게 전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중국이나 국제사회가 현재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의 격차를 인정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국과 중국 양국국민들의 인식만 보면 서로를 제로섬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사항 중의 하나이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 서로 윈윈게임보다 제로섬게임을 가정하고 대외정책을 펼칠 경우 중국의 국력증강에 비례하여 드러나고 있는 중국내부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결부되어 예상치 못한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서진영 2006).

결국 현재 미국뿐 아니라 주변 이해당사국들에게 중국은 커다란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

는 복합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중국을 위협세력 혹은 기회요인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결국 중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상당 부분 해당시점의 상황논리와 중국의 경제실적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Sutter 2005).

본 연구는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상호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자면 결국 경제적 상호이익의 크기를 넓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제적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상호이익이 지속되는 한 주요 당사국 국민 뿐 아니라 정부의 실용적 입장을 강화시킬 것이다. 관건은 이러한 경제적 실적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 실적이 멈추는 순간 그 동안 잠재되어왔던 중국발(發) 위협요인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부상과정보다는 그 부상의 기세가 꺾이게 될 때 현실화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경우 중국 위협론은 외부세계보다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로 가야 하는 중국 자신에게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현재의 중국은 중국위협론의 가장 큰 위협이 중국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 1) 현실주의 그룹 내에서 미국 유일의 헤게모니체제를 강조하는 월포스(Wohlforth)는 중국이나 기타 잠재적 도전국가와 미국의 국력격차를 강조하면서도 패권경쟁국을 견제 및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전통적인 중국위협론이나 중국기회론과는 차이가 있다(Wohlforth 1999, 5-41). 미중간의 군사력 격차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사력이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비대칭적인 전력차이를 극복하려는 중국의 군현대화에 주목한다. 미국 내에서는 대만해협 위기 직후 중국의 해군력 특히 잠수함 전력의 위협에 대한 평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논쟁에 대해서는 Goldstein et al.(2004), Glosny(2004), O' Hanlon(2004) 등을 참조할 것.
- 2) 여기서 “절충주의(eclecticism)” 개념은 카젠스타인(Katzenstein)과 서재정(2004)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며 “대결과 협력, 경쟁의 복합적 관계”라는 개념은 서진영(2006)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학자에 따라 입장의 편차가 다양하여 무리한 일반화의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각 입장별 특징을 간명하게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표이다.
- 3) 이 도표는 서진영(2006), Katzenstein et al. (2004), Kim(1998), Robinson(1998), Sutter(2005) 등을 참조하여 필자가 재구성했다.
- 4) 이 자료들은 조사 대상국에 동일한 질문지를 포함시킴으로써 각국의 여론을 비교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BBC·글로벌스캔·EAI·매일경제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의 공식명칭에 부여되는 년도는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2006년 발표한 35개국 자료는 2005년 11~12월 사이에 조사된 결과이며, 2005년 발표한 23개국 자료는 2004년 11~12월 사이에 실시한 자료이다. 그러나 EAI·CCGA(2006) 데이터는 조사시점이 2006년 7월이고 발표시점이 12월로써 자료명칭에 부여되는 연도와 실제 조사연도가 일치한다.
- 5) 화평굴기(和平崛起)개념에 대해서는 하영선·김병국(2006)과 이태환(2006)을 참조할 것. 2000년 랜드연구소 보고서는 중국은 최소한 2015년까지는 미국의 군사적 경쟁자가 될 수 없으며, 2050년까지는 미국의 세계패권 경쟁국가로 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Khalilazd et al. 2000).
- 6) 이태환은 중국이 강성 힘뿐만 아니라 연성 힘 개념을 자신이 추구하는 ‘종합국력’ 개념에 포함시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이태환 2006, 147-151).
- 7) “00나라와 국민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0(매우 싫다)에서 50점(보통), 100점(매우 좋다)까지의 점수로 답변”한 수치를 평균 낸 값이다.



- 8) 이러한 입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학자는 서진영이다. 서진영은 중국의 외부에 대한 태도는 외부의 중국에 대한 태도에 따라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한다(서진영 2006). 사회정체성이론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정한울·정원철(2007, 113-115)를, 보다 자세한 내용은 Tajfel(1982), Abdelal et al(2005)등을 참조할 것.
- 9) 서진영은 이러한 인식격차가 중국의 객관적인 전력으로부터 오는 위협보다 근원적인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즉 중국의 대외정책은 외부세계의 중국에 대한 태도에 연계되어 반응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이다(서진영 2006, 132-133).
- 10) 해당 나라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50%)를 초과할 때 “00나라에 긍정적”이라고 정의하고 반대로 이에 못 미칠 때 “부정적”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분류는 양국에 대한 인식패턴을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보다 면밀한 이론과 지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유형화해 볼 필요가 있다.
- 11) 여기서 한국의 여론은 2005년 발표자료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49%로 과반수에 육박했지만 2006년도 발표자료에서는 40%로 크게 축소되었다. 한때 노무현대통령의 협력적 자주노선 표방 이후 현 정부와 여당이 한미동맹 대신 중국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중국대안론’을 견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미친중 여론이 확산되었다고 하면서 소위 ‘한미동맹 위기론’과 ‘중국대안론’이 논쟁을 벌인 바 있다(이내영 외 2005).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서도 꾸준히 비판적 여론이 강화되고 있어 중국대안론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는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형성된 국민적 반감과 경계심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 12)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조사 대상국인 35개국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현재 BBC·EAI·매일경제 33개국 국제현안조사 2006 데이터 중 국내에서 활용가능한 데이터는 중국·미국·영국·인도네시아·멕시코 데이터이다. 그러나 멕시코와 인도네시아의 데이터는 이 문항에 대해 ‘모름/무응답’이 많아 비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두 나라가 속한 반중반미형에는 한국과 영국 데이터로 인도네시아가 속한 친중반미형에는 중국데이터로 대체할 수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 13) 0점은 전혀 영향력이 없다, 5점은 보통, 10점은 매우 영향력이 크다는 보기를 주고 나라별로 0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응답하게 하여 얻은 결과이다.
- 14) 이 문항은 인도네시아 및 호주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 15) “다음의 사항이 10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심각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응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 심각한 위협 2. 심각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위협 3. 전혀 위협이 아니다’라는 선택지 중에서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 16)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한국에서 중국의 부상을 국익에 위협으로 보는 비율이 높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미국에서는 반대로 그 비율이 낮다.
- 17) 인도네시아 조사에서 누락된 문항이다.
- 18) BBC·글로벌스캔·EAI·매일경제(2005)의 조사는 2004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23개국에서 진행되었고, 조사결과 발표



는 2005년 1월과 2월 사이에 BBC와 매일경제 등 세계 여러 언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문항은 BBC·글로벌스캔·EAI·매일경제·한국리서치(2006)조사에는 포함되지 않고 2006년 6~7월에 실시한 EAI·CCGA(2006)조사에는 포함되었다. 다만 EAI·CCGA 조사에 이 두 문항을 포함한 국가는 미국·인도·중국·한국 등 4개국이다.

19) “다음 각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대체로 긍정적, 2. 대체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결과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0% 이상을 넘은 국가를 중국의 각 상황에 대해 찬성하는 국가로 해석한다.

20) 여기서 원래 질문은 “무역교류 확대를 위해 미국·중국·인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약간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이다.

21) 이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의 자세한 내용은 The Foreign Policy Roundtable(2006)을 참조하시오,

22) 중국위협론의 근원을 국내정치체제의 특성에서 찾는 이론적 논의는 Kim(1998, 11-14)을 참조할 것.

23) 선택지는 1. 대체로 긍정적(good), 2. 대체로 부정적(bad), 3 둘 다 아니다, 9. 모름/무응답이며 각국 수치는 이 중 1에 답한 비율이다.

24) 유소작위의 외교노선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하영선·김병국(2006)과 이태환(2006)을 참조할 것.



[표1] 미국의 주요국가 호감도 점수 평균 시계열 변화(1978-2006)

CCGA	영국	중국	북한	한국
1978	67	44	-	48
1982	68	47	-	44
1986	73	53	-	51
1990	74	45	-	47
1994	69	46	34	48
1998	69	47	36	50
2002	76	48	34	46
2004	70	44	28	49
2006	71	40	23	44

[표2] 35개국 미·중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 비율

BBC 2006	중국긍정	미국긍정
가나	46	61
나이지제	68	76
남아공	34	49
독일	31	21
러시아	32	22
멕시코	28	20
미국	35	63
브라질	57	33
사우디	54	38
세네갈	73	54
스리랑카	45	30
스페인	45	33
아르헨티나	41	19
아프간	58	72
영국	40	36
이라크	55	26
이란	66	26
이집트	68	21
이탈리아	22	34
인도	44	44
인도네시아	60	40
중국	86	22
짐바브웨	34	38
칠레	63	38
캐나다	36	30
케냐	59	65
콩고	59	47
탄자니아	53	63
터키	27	15
폴란드	28	62
프랑스	31	25
핀란드	24	19
필리핀	54	85
한국	40	44
호주	43	29

[표3] 중국의 경제력 강화·군사력 강화에 대한 “긍정” 비율(2005~2006)

BBC 2005	경제강국화	군사강국화
남아공	64	42
독일	42	7
러시아	43	19
레바논	67	44
멕시코	54	33
미국	46	19
브라질	48	31
스페인	31	9
아르헨티나	30	14
영국	53	25
이탈리아	41	17
인도	68	56
인도네시아	65	27
일본	35	3
중국	92	89
칠레	48	21
캐나다	53	20
터키	26	17
폴란드	39	13
프랑스	59	19
필리핀	63	45
한국	54	38
호주	52	14

CCGA 2006	경제강국화	군사강국화
미국	47	19
인도	46	40
중국	91	90
한국	59	31



Data

- EAI · 시카고국제문제협회 · 중앙일보 공동 『국제 대외인식 여론조사Ⅱ 2006 : 친디아의 부상』 데이터(조사시점 : 2006년 6월-7월, 면접조사, 7개국 조사)
- BBC · 글로브스캔 · EAI · 매일경제 · 한국리서치 공동 『국제현안 여론조사 2006』 데이터(조사시점 : 2005년 11월 15일-18일, 전화조사, 35개국 조사)
- BBC · 글로브스캔 · EAI · 매일경제 공동 『국제현안 여론조사 2005』 데이터(조사시점 : 2004년 11월-12월, 면접 조사, 23개국 조사)

참고문헌

- 김성한, 2005. “미국의 동아태 전략 : 변화와 지속성,”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제12호.
- 김성한 · 정한울, 2006. “부시2기 외교정책의 딜레마 : 미국 및 세계 여론의 제약요인,” 『국제정치논총』, 제46집 1호, pp.189-212.
- 김장수, 2006. “미국의 변화하는 정치지형과 대외정책 전망,” 서진영 · 이신화 · 김장수 (편),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치지형과 전략』, 서울 : 오름.
- 민신 페이지, 2006. “목적지 없는 대장정,” *Foreign Policy* 한글판, May/June.
- 부르스 길리, 2006. “인민이 이끌면 엘리트는 따른다,” *Foreign Policy* 한글판, May/June.
- 서진영, 2006.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한반도 : 중국은 위협인가 기회인가,” 서진영 · 이신화 · 김장수(편),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치지형과 전략』, 서울 : 오름.
- 앨버트 키텔, 2006. “중국은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Foreign Policy* 한글판, May/June.
- 이내영 · 정한울, 2005. “동맹의 변환과 한국인의 대미인식 : 한미동맹위기와 대미인식 다원화 현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5집 3호.
- 이태환, 2006. “21세기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하영선(편),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 그물망국가 건설』,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 정한울 · 정원철, 2007.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과 민족정체성,” 강원택 (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pp.107-132.
- 크리스토퍼 휘트니 · 정한울, 2006. “미 국민들이 보는 중국 : 그 기대와 우려,” 『월간 넥스트』 11월호, pp.119-125.
- 첵리, 2006. “중국의 지도층도 바뀌고 있다,” *Foreign Policy* 한글판, May/June
- 하영선 · 김병국, 2006. “새로 그리는 동아시아 전략지도 : 국가이익 · 정체성 · 힘의 정치,” 하영선(편),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 그물망국가 건설』,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 홍순형 · 전영재 외, 2006. 『SERI 전망 2007』,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 Abdelal, Rawi, Yoshiko M. Herrera, Alastair Iain Johnston and Rose McDermott, 2005. “Identity as a Variable,” Harvard University Weatherhead Center,
<http://www.wcfia.harvard.edu/misc/initiative/identity/publications/ID060825.pdf>
(검색일: 2007년 4월 1일).



- Bernstein, Richard and Ross H. Munro, 1997. "Commings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March/April.
- Burles, Mark and Abram N. Shulsky, 2000. *Patterns in China's Use of Force: Evidence from History and Doctrinal Writings*, (Rand: MR-1160-AF-2000).
- Copeland, Dale, 2003.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the Future of US-Chinese Relations,"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pp. 323-52.
- Deng, Yong and Fei-Ling Wang, eds., 1999. *In the Eyes of the Dragon: China Views the World*, Lanham: Rowman & Little field Publishers.
- Department of Defense, 2006.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ual Report to Congress*.
- _____, 2005.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ual Report to Congress*.
- _____, 2004.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ual Report to Congress*.
- _____, 2006. Quadrennial Defense Review.
- Dittmer, Lowell and Samuel S. Kim, eds., 1993. *China's Quest For National Ident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Economy, Elizabeth, 2001. "The Impact of International Regimes on Chinese Foreign Policy-Making," David Lampton, ed.,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Californ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Erikson, Robert S. and Kent L. Tedin, 2005. *American Public Opinion: Its Origins, Contents, and Impact*, New York: Pearson.
- Friedman, Edward and Barret L. McCormick, 2000. *What If China Doesn't Democratize? : Implications for War and Peace*, New York: M. E. Sharpe.
- Glosny, Michael A., 2004. "Strangulation from the Sea?: A PRC Submarine Blockade of Taiwan," *International Security*, Vol.28, No.4 (Spring 2004), pp.125-160.
- Goldstein, Avery, 2001. "The Diplomatic Face of China's Grand Strategy: A Rising Power's Emerging Choice," *China Quarterly* 168 (December), pp. 835-864.
- Goldstein, Lyle and William Murray, 2004. "Undersea Dragons: China's Maturing Submarine Force," *International Security*, Vol.28, No.4 (Spring 2004), pp.161-191.
- Gries, Peter H., 2004. *China's New Nationalism: Pride, Politics, and Diplomacy*,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ng, David, 2003. "Hierarchy and Stability in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_____, 2003. "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International*



Security, (Spring 2003).

- Katzenstein, Peter J. and Rudra Sil, 2004. "Rethinking Asian Security: A Case for Analytical Eclecticism," J. J. Suh, Peter J. Katzenstein and Allen Carlson, eds., *Rethinking Security in East Asia: Identity, Power, and Efficiency*, California: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 Kim, Samuel S., 1998. "Chinese Foreign Policy in Theory and Practice," Samuel S. Kim ed., *China and the World*, Colorado: Boulder, Westview Press, pp. 3-33.
- Kull, Steven and Clay Ramsay, 2002. "How Policymakers Misperceive US Public Opinion on Foreign Policy," Jeff Manza, Fay L. Cook and Benjamin I. Page, eds., *Navigating Public Opinion*, New York: Oxford Univ. Press.
- Lampton, David, 2007. "The Faces of Chinese Power," *Foreign Affairs* (Jan/Feb).
- _____, 2001. "China's Foreign and National Security Policy-Making Process: Is It Changing and Does It Matter?" David Lampton, ed.,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1978-2000*, 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pp. 1-36.
-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O'Hanlon, Michael, 2004. "Damn the Torpedoes: Debating Possible U.S. Navy Losses in a Taiwan Scenario," *International Security*, Vol.29, No.2 (Fall 2004), pp. 202-206.
- Pei, Minxin, 2002. "China's Governance Crisis," *Foreign Affairs*, Sept./Oct.
- Robinson, Thomas, 1998. "[In]terdependence in China's Post-Cold War Foreign Relations," Samuel S. Kim, ed., *China and the World*, Colorado: Boulder, View Press, pp. 193-216.
- Segal, Gerald, 1999. "Does China Matter?" *Foreign Affairs*, Sept/Oct.
- Shambaugh, David, 2005. "China Engages Asia: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29: 3 (Winter 2004/05), pp. 64-99.
- Shapiro, Robert and Lawrence R. Jacobs, 2002. "Public Opinion, Foreign Policy and Democracy: How Presidents Use Public Opinion," Jeff Manza, Fay L. Cook and Benjamin I. Page, eds. *Navigating Public Opinion*, New York: Oxford Univ. Press
- Suh, J. J., Peter J. Katzenstein and Allen Carlson, eds., 2004. *Rethinking Security in East Asia: Identity, Power, and Efficiency*, Stanford, Calif.: Stanford Univ. Press.
- Sutter, Robert G., 2005. *China's Rise in Asia: Promises and Perils*, Columbia: Boulder,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Swaine, Michael D. and Ashley J. Tellis, 2000. *Interpreting China's Grand Strategy: Past, Present, and Future*, Project Air Force : Rand.
- Tajfe,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pp.1-39.
- The Foreign Policy Roundtable, 2006. "Two China Stories," *Foreign Policy*, May/June.
- Wohlforth, William C., 1999.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1(Summer), pp.5-41.

부록



1. 조사방법 개요
2. 분석문항과 빈도표



1. 조사방법 개요

EAI · 시카고국제문제협회 · 중앙일보 공동 대외인식 여론조사II 2006

동아시아연구원(EAI)은 2004년에 이어 시카고국제문제협회(Chicago Councils on Global Affairs, 전신 시카고외교협회인 CCFR)와 함께 대외인식 여론조사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북핵문제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 FTA 문제와 같은 한반도 이슈뿐 아니라 세계적 현안인 인도의 부상에 대한 세계인의 여론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중앙일보를 통해 분석결과가 보도된 바 있다.

조사 설계

- 참여국가 : 한국 · 미국 · 중국 · 인도 · 일본 · 인도네시아 · 호주
- 참여인원 : 9,880명
- 총괄기획 : 시카고국제문제협회(CCGA)
- 한국 조사기획 : EAI
- 한국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 한국 조사후원 : 중앙일보
- 한국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조사지역 : 전국
- 유효표본 : 1,024명
- 조사방법 : 표준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법
- 표본추출방법 : 다단계 지역 추출법(Multi-Stage Area Sampling)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3.1\%$
- 조사일시 : 2006년 6월 19일 ~ 7월 7일

BBC · 글로브스캔 · EAI · 매일경제 · 한국리서치 공동 국제현안 여론조사 2006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국제현안 여론조사 2006 프로젝트는 세계 35개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제 외교안보 질서와 세계 현안에 대한 각국의 여론을 조사·분석하였다.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EAI)이 매일경제와 현대그룹의 후원으로 기획 및 분석을 담당하였으며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담당하였다.



[35개 참여국가 목록]

가나 · 나이지리아 · 남아공 · 독일 · 러시아 · 미국 · 멕시코 · 브라질 · 사우디아라비아 · 세네갈 · 스리랑카 · 스페인 · 아르헨티나 ·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 이란 · 이집트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중국 · 짐바브웨 · 칠레 · 캐나다 · 케냐 · 콩고 · 탄자니아 · 터키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필리핀 · 한국 · 호주

조사 설계

- 참여국가 : 세계 35개국
- 참여인원 : 41,856명
- 총괄기획 : GlobeScan · PIPA
- 총괄후원 : BBC월드서비스
- 한국 조사기획 : EAI · 매일경제 · 한국리서치
- 한국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 한국 조사후원 : 매일경제 · 현대그룹
- 한국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조사지역 : 전국
- 유효표본 : 1,000명
- 조사방법 : 표준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 표본추출방법 : 다단계 지역 추출법(Multi-Stage Area Sampling)
- 표본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pm 3.1\%$
- 조사일시 : 2005년 11월 15일 ~ 18일

BBC · 글로브스캔 · EAI · 매일경제 공동 23개국 국제현안 여론조사 2005

동아시아연구원(EAI)이 BBC월드서비스의 주관으로 국제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브스캔(GlobeScan)과 공동으로 진행한 국제현안 여론조사 2005는 주요 국제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세계여론을 파악하고 국가별 인식과 태도의 보편성 · 특수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매일경제에 연재하였다.

[23개 참여국가 목록]

남아공 · 독일 · 러시아 · 레바논 · 멕시코 · 미국 · 브라질 · 스페인 · 아르헨티나 · 영국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중국 · 칠레 · 캐나다 · 터키 · 폴란드 · 프랑스 · 필리핀 · 한국 · 호주



조사 설계

- 참여국가 : 세계 23개국
- 참여인원 : 22,953명
- 총괄기획 : GlobeScan · PIPA
- 총괄후원 : BBC월드서비스
- 한국 조사기획 : EAI
- 한국 조사기관 : 코리아리서치
- 한국 조사후원 : 매일경제
- 한국 조사대상 :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조사지역 : 전국
- 유효표본 : 1,000명
- 조사방법 : 표준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법
- 표본추출방법 : 지역별 · 성별 ·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법(Quota Sampling)
- 표본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pm 3.1\%$
- 조사일시 : 2004 년 11월 26일 ~ 12월 16일



2. 조사 문항과 빈도표

EAI · 시카고국제문제협회 · 중앙일보 대외인식 여론조사II 2006

문 3 (1-13) : 다음은 향후 10년 안에 [조사대상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3/1. 중국의 발전

(N=6,716)

	매우 위협(%)	다소 위협(%)	전혀 위협안됨(%)	모름/무응답(%)	전체(%)
미국	36	54	8	2	100
인도	43	31	18	9	100
일본	45	47	8	0	100
한국	49	42	8	1	100
호주	25	52	22	1	100

3/4. 국제 테러주의

(N=8,680)

	매우 위협(%)	다소 위협(%)	전혀 위협안됨(%)	모름/무응답(%)	전체(%)
미국	74	23	2	1	100
중국	42	35	16	7	100
인도	65	19	8	8	100
일본	76	22	2	0	100
한국	49	42	9	1	100
호주	73	22	5	0	100

3/7. 지구 온난화

(N=8,680)

	매우 위협(%)	다소 위협(%)	전혀 위협안됨(%)	모름/무응답(%)	전체(%)
미국	46	39	13	2	100
중국	47	33	12	8	100
인도	51	27	10	12	100
일본	82	16	2	0	100
한국	67	29	4	0	100
호주	68	26	5	1	100



3/8. 에이즈, 조류독감 등 전염병의 창궐

(N=8,680)

	매우 위협(%)	다소 위협(%)	전혀 위협안됨(%)	모름/무응답(%)	전체(%)
미국	49	45	5	1	100
중국	65	25	8	3	100
인도	60	22	9	9	100
일본	70	27	3	0	100
한국	59	36	6	0	100
호주	58	36	6	0	100

3/10. 에너지 공급의 차질

(N=8,680)

	매우 위협(%)	다소 위협(%)	전혀 위협안됨(%)	모름/무응답(%)	전체(%)
미국	59	37	3	1	100
중국	54	29	10	8	100
인도	43	32	13	11	100
일본	76	22	2	1	100
한국	64	31	4	0	100
호주	51	41	8	1	100

3/12. 한반도의 불안정과 갈등

(N=8,680)

	매우 위협(%)	다소 위협(%)	전혀 위협안됨(%)	모름/무응답(%)	전체(%)
미국	38	50	9	3	100
중국	23	42	22	14	100
인도	29	28	23	20	100
일본	67	28	5	0	100
한국	29	60	11	1	100
호주	34	45	16	5	100

문 15 : 국제문제와 관련하여, [조사대상국]은 [조사대상국]의 입장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유엔(UN)의 테두리 내에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5. [조사 대상국]과 다른 UN의 정책 결정 채택 여부

(N=7,673)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전체(%)
미국	60	36	4	100
중국	78	12	10	100
인도	44	35	21	100
일본	65	35	0	100
한국	48	49	3	100

문 45 :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 무역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조사대상국]을 제소했고 그 결과가 [조사대상국]에 불리한 것으로 나왔다면, [조사대상국]이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5. [조사대상국]에 불리한 WTO 제소 결과에 대한 채택 여부

(N=7,673)

	예(%)	아니오(%)	경우에 따라 다름(%)	모름/무응답(%)	전체(%)
미국	73	22	3	1	100
중국	58	19	16	8	100
인도	37	29	21	14	100
일본	64	36	0	0	100
한국	37	52	10	1	100

문 160 : 중국의 경제발전이 중국정부의 정치경제 시스템 운영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불리하다고 보십니까?

160. 정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리

(N=5,649)

	유리(%)	불리(%)	둘 다 아님(%)	모름/무응답(%)	전체(%)
미국	49	42	5	4	100
중국	78	10	4	9	100
인도	46	23	12	19	100



문 165 (1-3) : 지구촌 다른 나라와의 경제 관계를 밀접하게 맺는 세계화가 [조사대상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65/1. 세계화

(N=9,880)

	긍정적 영향 (유익함)(%)	부정적 영향 (해로움)(%)	중립/둘다 같음 (%)	모름/무응답 (%)	전체 (%)
미국	60	35	0	5	100
중국	87	6	0	7	100
인도	54	30	0	16	100
일본	92	8	0	0	100
한국	86	12	0	2	100
호주	64	28	8	0	100
인도네시아	61	31	8	0	100

문 300 : [조사대상국]이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조사대상국]의 장래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0. [조사대상국] 의 국제 문제 적극 개입의 긍정적 작용

(N=8,680)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전체(%)
미국	69	28	3	100
중국	87	7	7	100
인도	56	31	13	100
일본	74	26	0	100
한국	81	17	2	100
호주	82	14	4	100

문 323 (1-6) : 미국, 중국, 인도가 다음의 사항에 대해 협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3/2. 무역 확대

(N=5,649)

	매우 중요(%)	중요(%)	중요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전체(%)
미국	34	51	10	5	100
중국	52	33	6	9	100
인도	55	31	8	7	100



문 333 (1-16) : 보기에 있는 나라와 국민에 대해 귀하께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저 그렇다' 인 50을 기준으로 '매우 우호적'인 경우에는 100, '매우 적대적'인 경우에는 0입니다.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감정을 0에서 100사이의 숫자로 적어 주십시오.

333/1. 북한

(N=9,880)

	평균	중위수	100~76도 (%)	75~51도 (%)	50도 (%)	49~31도 (%)	30~0도 (%)	모름/무응답 (%)	전체 (%)
미국	23	20	2	4	14	9	58	15	100
중국	73	80	48	26	16	2	3	6	100
인도	53	50	27	12	13	5	28	15	100
일본	7	0	0	1	3	1	93	3	100
한국	49	50	9	24	37	10	21	0	100
호주	43	50	9	16	25	10	35	4	100
인도네시아	48	50	6	23	35	12	20	3	100

333/6. 중국

(N=7,916)

	평균	중위수	100~76도 (%)	75~51도 (%)	50도 (%)	49~31도 (%)	30~0도 (%)	모름/무응답 (%)	전체 (%)
미국	40	50	5	14	25	13	31	12	100
인도	54	50	21	24	20	6	20	10	100
일본	30	30	2	10	18	12	57	3	100
한국	57	60	13	42	31	8	7	0	100
호주	61	60	26	36	23	8	9	1	100
인도네시아	57	50	15	34	32	8	10	1	100

333/9. 한국

(N=8,856)

	평균	중위수	100~76도 (%)	75~51도 (%)	50도 (%)	49~31도 (%)	30~0도 (%)	모름/무응답 (%)	전체 (%)
미국	44	50	8	18	24	7	27	15	100
중국	73	80	48	32	8	2	4	7	100
인도	48	50	17	18	15	8	29	12	100
일본	41	45	6	22	21	12	38	2	100
호주	56	50	17	27	30	8	13	4	100
인도네시아	48	50	7	24	37	10	19	3	100



333/10. 인도

(N=7,422)

	평균	중위수	100~76도 (%)	75~51도 (%)	50도 (%)	49~31도 (%)	30~0도 (%)	모름/무응답 (%)	전체 (%)
미국	46	50	9	18	25	11	25	12	100
중국	62	60	20	39	18	6	8	10	100
일본	49	50	6	29	29	10	19	7	100
한국	58	50	9	43	43	7	5	0	100
호주	62	60	25	23	23	5	8	2	100
인도네시아	55	50	12	36	30	9	12	1	100

333/11. 일본

(N=8,880)

	평균	중위수	100~76도 (%)	75~51도 (%)	50도 (%)	49~31도 (%)	30~0도 (%)	모름/무응답 (%)	전체 (%)
미국	58	60	23	23	22	6	14	12	100
중국	36	40	8	15	20	8	45	4	100
인도	54	60	26	20	12	4	27	10	100
한국	39	40	5	19	22	13	40	0	100
호주	64	70	31	35	20	4	8	2	100
인도네시아	63	60	25	39	23	5	7	1	100

333/12. 미국

(N=8,653)

	평균	중위수	100~76도 (%)	75~51도 (%)	50도 (%)	49~31도 (%)	30~0도 (%)	모름/무응답 (%)	전체 (%)
중국	51	50	18	25	20	7	25	4	100
인도	57	60	32	18	12	5	24	10	100
일본	63	70	31	36	19	5	9	2	100
한국	58	60	21	36	22	8	14	0	100
호주	62	70	35	27	16	6	15	1	100
인도네시아	51	50	16	25	25	11	23	1	100



333/13. 호주

(N=8,873)

	평균	중위수	100~76도 (%)	75~51도 (%)	50도 (%)	49~31도 (%)	30~0도 (%)	모름/무응답 (%)	전체 (%)
미국	69	75	41	22	14	2	9	12	100
중국	65	70	25	36	17	3	5	14	100
인도	52	50	27	19	12	7	26	14	100
일본	64	70	22	41	19	4	7	3	100
한국	65	60	26	44	25	2	2	0	100
인도네시아	48	50	12	22	25	13	27	1	100

문 335 (1-11) : 보기에 있는 국제기구나 조직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저 그렇다' 인 50을 기준으로 '매우 우호적'인 경우에는 100, '매우 적대적'인 경우에는 0입니다.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감정을 0에서 100사이의 숫자로 적어 주십시오.

335/1. 세계무역기구(WTO)

(N=7,673)

	평균	중위수	100~76도 (%)	75~51도 (%)	50도 (%)	49~31도 (%)	30~0도 (%)	모름/무응답 (%)	전체 (%)
미국	50	50	12	20	25	7	19	18	100
중국	79	80	59	23	8	1	1	8	100
인도	67	70	42	16	10	3	17	12	100
일본	55	50	10	31	33	6	11	9	100
한국	62	60	22	37	30	4	6	0	100

335/2. 유엔(UN)

(N=7,673)

	평균	중위수	100~76도 (%)	75~51도 (%)	50도 (%)	49~31도 (%)	30~0도 (%)	모름/무응답 (%)	전체 (%)
미국	55	60	24	22	16	5	20	13	100
중국	75	80	52	29	9	2	2	7	100
인도	63	70	40	15	12	4	20	10	100
일본	57	60	17	33	29	6	11	6	100
한국	70	70	39	39	18	2	2	0	100



335/5. 국제통화기금(IMF)

(N=7,673)

	평균	중위수	100~76도 (%)	75~51도 (%)	50도 (%)	49~31도 (%)	30~0도 (%)	모름/무응답 (%)	전체 (%)
미국	44	50	6	13	24	6	20	30	100
중국	70	70	26	28	10	2	2	32	100
인도	55	60	24	22	15	7	20	12	100
일본	53	50	10	25	34	5	12	14	100
한국	59	60	19	35	31	7	7	0	100

문 345 (1-9) : 다음의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은 “전혀 영향력 없다”, 10은 “매우 영향력 있다”로 하여 0부터 10 사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345/1. 미국

(N=7,673)

	평균	중위수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모름/무응답 (%)	전체 (%)
미국	8.5	9	1	0	0	0	1	6	3	7	17	21	35	9	100
중국	8.6	9	0	0	0	1	1	3	4	7	19	29	31	4	100
인도	7.3	8	22	6	4	2	2	5	5	7	13	15	31	7	100
일본	8.5	9	1	0	0	1	1	4	3	8	22	20	39	0	100
한국	8.5	9	0	1	1	1	1	2	4	10	22	30	29	0	100

345/5. 중국

(N=7,673)

	평균	중위수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모름/무응답 (%)	전체 (%)
미국	6.4	7	3	1	2	3	5	18	11	15	16	0	9	7	100
중국	7.8	8	0	0	0	1	3	6	9	16	24	21	16	4	100
인도	6.0	6	4	4	6	5	6	13	11	16	12	8	10	7	100
일본	5.6	6	3	3	3	5	9	20	18	18	14	4	3	1	100
한국	6.7	8	0	1	2	2	4	17	19	24	21	10	3	0	100



문 352 : 귀하께서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언젠가는 미국만큼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보다 더 큰 경제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52. 중국의 미래 경제 규모

(N=6,673)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 만큼 커질 것이다.(%)	미국이 계속 중국보다 더 큰 경제규모를 유지할 것이다.(%)	모름/무응답 (%)	전체 (%)
미국	60	35	4	100
중국	50	38	12	100
인도	22	36	42	100
한국	61	37	2	100

문 377 (1-5) : 귀하께서는 다음에 읽어드릴 몇 가지 가능한 미래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377/1. 중국이 현재보다 경제적으로 매우 강해지는 상황

(N=6,673)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모름/무응답(%)	전체(%)
미국	47	46	7	100
중국	91	7	3	100
인도	46	39	15	100
한국	59	41	1	100

377/2. 중국이 현재보다 군사적으로 매우 강해지는 상황

(N=6,673)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모름/무응답(%)	전체(%)
미국	19	75	7	100
중국	90	6	3	100
인도	40	46	13	100
한국	31	68	1	100



BBC · 글로벌스캔 · EAI · 매일경제 · 한국리서치 공동 35개국 국제현안 여론조사 2006

문 2Bt : 다음의 국가가 전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긍정적인지 혹은 대체로 부정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중국

(N=41,856)

	대체로 긍정적 (%)	대체로 부정적 (%)	상황에 따라 다름 (%)	둘다 아님/중립 (%)	잘모름/무응답 (%)	전체 (%)
아프가니스탄	58	13	14	6	9	100
아르헨티나	41	27	4	2	25	100
호주	43	38	7	4	8	100
브라질	57	27	2	2	12	100
캐나다	36	44	3	5	12	100
칠레	63	15	5	7	11	100
중국	86	6	4	1	4	100
콩고	59	12	14	3	12	100
이집트	68	10	7	3	12	100
핀란드	24	54	11	3	8	100
프랑스	31	53	6	1	9	100
독일	31	44	11	8	6	100
가나	46	9	21	9	15	100
영국	40	44	3	3	10	100
인도	44	15	16	8	18	100
인도네시아	60	23	11	2	4	100
이란	66	25	4	3	2	100
이라크	55	15	22	5	2	100
이탈리아	22	55	5	7	11	100
케냐	59	7	11	4	12	100
멕시코	28	26	12	3	19	100
나이지리아	68	11	26	4	16	100
필리핀	54	30	7	3	11	100
폴란드	28	34	6	1	8	100
러시아	32	33	16	8	23	100
사우디아라비아	54	7	23	7	11	100
세네갈	73	6	6	2	13	100
남아공	34	21	15	8	22	100
한국	40	58	1	0	1	100
스페인	45	32	11	3	8	100
스리랑카	45	5	5	2	44	100
탄자니아	53	14	20	4	9	100
터키	27	31	14	9	18	100
미국	35	53	2	3	7	100
짐바브웨	34	17	34	6	9	100
평균	47	26	11	4	12	100



e) 미국

(N=41,856)

	대체로 긍정적 (%)	대체로 부정적 (%)	상황에 따라 다름 (%)	둘다 아님/중립 (%)	잘 모름/무응답 (%)	전체 (%)
아프가니스탄	72	14	7	3	4	100
아르헨티나	19	62	2	1	16	100
호주	29	60	4	3	4	100
브라질	33	60	2	1	4	100
캐나다	30	60	4	2	4	100
칠레	38	46	5	3	8	100
중국	22	62	9	1	7	100
콩고	47	28	13	4	8	100
이집트	21	54	10	2	13	100
핀란드	19	65	9	2	5	100
프랑스	25	65	6	0	4	100
독일	21	65	10	3	1	100
가나	61	20	11	2	6	100
영국	36	57	2	2	4	100
인도	44	17	17	8	14	100
인도네시아	40	47	9	1	2	100
이란	26	65	3	3	3	100
이라크	26	56	14	2	2	100
이탈리아	34	46	5	8	7	100
케냐	65	12	13	1	8	100
멕시코	20	55	10	9	16	100
나이지리아	76	17	3	0	4	100
필리핀	85	10	3	1	2	100
폴란드	62	15	8	3	11	100
러시아	22	52	14	4	8	100
사우디아라비아	38	38	13	3	9	100
세네갈	54	25	12	2	7	100
남아공	49	18	11	5	17	100
한국	44	53	1	1	1	100
스페인	33	53	9	1	4	100
스리랑카	30	20	7	2	42	100
탄자니아	63	16	14	4	4	100
터키	15	49	15	8	13	100
미국	63	30	2	3	2	100
짐바브웨	38	28	18	6	9	100
평균	40	41	8	3	8	100



BBC · 글로벌스캔 · EAI · 매일경제 공동 23개국 국제현안 여론조사 2005

문 2Bt : 다음의 국가가 전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긍정적인지 혹은 대체로 부정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중국

	(N=21,961)			
	대체로 긍정적 (%)	대체로 부정적 (%)	기타 (%)	전체 (%)
아르헨티나	44	26	30	100
호주	56	28	16	100
브라질	53	32	15	100
캐나다	49	39	12	100
칠레	56	15	29	100
프랑스	49	33	18	100
독일	34	47	29	100
영국	46	34	30	100
인도	66	20	14	100
인도네시아	68	20	12	100
이탈리아	42	40	18	100
일본	22	25	53	100
레바논	74	9	17	100
멕시코	33	28	3	100
필리핀	70	23	7	100
폴란드	26	33	41	100
러시아	42	27	31	100
남아공	62	25	13	100
한국	49	47	4	100
스페인	37	33	30	100
터키	34	36	30	100
미국	39	46	15	100
평균	48	30	22	100

e) 미국

	(N=21,953)			
	대체로 긍정적 (%)	대체로 부정적 (%)	기타 (%)	전체 (%)
아르헨티나	19	65	16	100
호주	40	52	8	100
브라질	42	51	7	100
캐나다	34	6	60	100
칠레	29	50	21	100
프랑스	40	42	18	100
독일	38	54	8	100
영국	27	64	9	100
인도	44	50	6	100
인도네시아	54	30	16	100
이탈리아	38	51	11	100
일본	49	40	11	100
레바논	24	31	45	100
멕시코	33	49	18	100
필리핀	11	57	32	100
폴란드	88	9	3	100
러시아	52	21	27	100
남아공	16	63	21	100
한국	56	35	9	100
스페인	52	45	3	100
터키	18	62	28	100
평균	47	38	15	100



문 GB2 : 귀하께서는 다음에 읽어드릴 몇 가지 가능한 미래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a) 중국이 현재보다 경제적으로 매우 강해지는 상황

b) 중국이 현재보다 군사적으로 매우 강해지는 상황

(N=22,953)

	대체로 긍정적 (%)	대체로 부정적 (%)	기타 (%)	전체 (%)
아르헨티나	30	41	29	100
호주	52	38	10	100
브라질	48	35	17	100
캐나다	53	37	10	100
칠레	48	23	29	100
프랑스	59	31	10	100
독일	42	44	16	100
영국	53	34	13	100
인도	68	17	15	100
인도네시아	65	21	14	100
이탈리아	41	47	12	100
일본	35	23	42	100
레바논	67	11	22	100
멕시코	54	18	28	100
필리핀	6	31	6	100
폴란드	39	32	39	100
러시아	43	33	24	100
남아공	64	25	11	100
한국	54	43	3	100
스페인	31	47	22	100
터키	26	42	32	100
미국	46	45	9	100
평균	49	33	18	100

(N=22,953)

	대체로 긍정적 (%)	대체로 부정적 (%)	기타 (%)	전체 (%)
아르헨티나	14	58	28	100
호주	14	79	7	100
브라질	31	50	19	100
캐나다	20	70	10	100
칠레	21	53	26	100
프랑스	19	64	17	100
독일	7	87	6	100
영국	25	65	10	100
인도	56	27	17	100
인도네시아	27	55	18	100
이탈리아	17	49	33	100
일본	3	78	19	100
레바논	44	27	29	100
멕시코	33	37	30	100
필리핀	45	46	9	100
폴란드	13	65	22	100
러시아	19	59	22	100
남아공	42	42	16	100
한국	38	58	4	100
스페인	9	76	15	100
터키	17	49	33	100
미국	19	75	6	100
평균	24	59	17	100

EAI의 단행본*



EAI 외교안보연구시리즈

- ① 21세기 한국외교의 대전략 : 그물망 국가 건설
- ②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 ③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EAI 정책연구시리즈

- ① 대통령의 성공조건 I : 역할 · 권한 · 책임
- ②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 회고와 제언
- ③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 ④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 ⑤ 국회의 성공조건 : 윤리와 정책
- ⑥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 ⑦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근간)

EAI 시민정치여론시리즈

- ①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 국민여론 · 소수정부 · 정책선택
- ②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 ③ 한국의 유권자① : 유권자 투표행태 변화와 한국 정치(근간)

EAI 중국연구시리즈

- ① 2020년 중국 리스크 :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EAI 영문서적

- ①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 ②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근간)

EAI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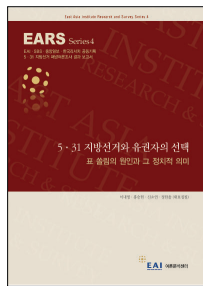
EAI 보고서 * EAI 보고서



국가안보패널보고서 NSP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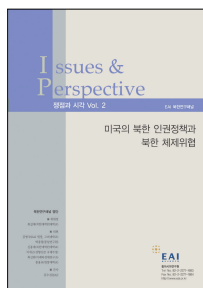
국가안보패널보고서 NSP Report

- 제 1호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하영선 · 전재성 2004. 6. 17)
- 제 2호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 (김성한 2004. 8. 4)
- 제 3호 주한미군 재배치와 21세기 한국의 신안보 전략개념 (한용섭 2004. 9. 24)
- 제 4호 [개정본]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하영선 · 전재성 2004. 10. 22)
- 제 5호 2004 미국대선과 한반도 (장 훈 2004. 11. 1)
- 제 6호 북한체제위기와 한국의 대북정책 (신성호 2005. 1. 26)
- 제 7호 일본의 안보선택과 한국의 진로 (박철희 2005. 3. 22)
- 제 8호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이태환 2005. 5. 23)
- 제 9호 정보화시대의 군사제국 : 미 군사변환의 세계전략과 네트워크 (이상현 2005. 10. 4)
- 제10호 미국의 동아태 전략 : 변화와 지속성 (김성한 2005. 11. 17)
- 제11호 [2차개정본]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하영선 · 전재성 2006. 1. 2)
- 제12호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국의 FTA 전략 (정진영 2006. 1. 2)
- 제13호 확산안보구상(PSI)과 한반도 (신성호 2006. 1. 25)
- 제14호 한반도 평화체제 (전재성 2006. 7. 12)
- 제15호 강압외교 (신성호 2006. 7. 13)
- 제16호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박종철 2006. 8. 23)
- 제17호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고민 (서병훈 2006. 8. 24)
- 제18호 북한경제개혁을 위한 남북경협 (오승렬 2006. 10. 26)
- 제19호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 진단과 처방 (하영선 2006. 11. 3)



여론분석 워킹페이퍼 시리즈 EARS Series

- 제 1호 노무현 정부 1년 국정평가 (이내영 · 이성봉 · 정원철 2004. 6. 21)
- 제 2호 전환기의 한미동맹과 국민여론 (이내영 · 정한울 · 정원철 2005. 5. 11)
- 제 3호 여론과 미국외교 : 부시2기 외교정책의 딜레마와 선택 (김성한 · 정한울 2005. 12. 12)
- 제 4호 5·31 지방선거와 유권자의 선택 : 표 쏠림의 원인과 그 정치적 의미 (이내영 · 홍승헌 · 신소연 · 정한울 2006. 12. 1)
- 제 5호 중국의 부상, 위협인가 기회인가 : 세계여론을 통해 본 중국의 현재와 미래 (이내영 · 정한울 2007. 8. 6)



북한연구패널보고서 Issues & Perspective

- 제1호 북핵문제해결의 경제적 수단 : 보상과 제재의 효과와 한계 (박종철 2006. 6. 28)
- 제2호 미국의 북한 인권정책과 북한 체제위협 (이대근 2006. 6. 28)

※ EAI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는 EAI 홈페이지 (<http://www.eai.or.kr/korean/publicing/report/booklist.asp>)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이상협 EAI 여론분석센터 연구원(shaylee@eai.or.kr) TEL: 02-2277-1683 (내선 106) FAX: 02-2277-1684



동아시아연구원(EAI)을 후원해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2007년 8월 6일 현재)

강영준	김성수	김창욱	박상용	신동준	이동찬	임상균	차순만
강윤관	김세종	김철영	박상준	신성호	이동훈	임성빈	채혜경
강찬수	김수진	김하정	박수진	신영준	이마리	임재환	최 건
강홍렬	김시연	김현전	박순휘	신윤경	이미혜	임현모	최관주
고승수	김신숙	김형국	박용준	심운보	이민교	임현진	최복대
고은희	김연옥	김형재	박재준	안건영	이민자	임홍재	최신티
고형식	김영구	김형준	박정호	안용찬	이병인	장대환	최윤준
고혜선	김영미	김형찬	박준형	안준모	이상협	장원호	최종호
공성원	김영섭	김효신	박진원	안중익	이상호	장의영	최진원
곽노전	김영원	김희동	박찬근	양순화	이선주	장진호	최철원
곽준엽	김용규	김희정	박찬선	양주명	이성량	전경수	추기능
구상환	김용남	김희진	박 현	여동찬	이여희	전명선	하영호
구준서	김용수	남윤호	박휘락	예병민	이영복	전혜경	한계숙
권용순	김용준	남태희	방효은	오명학	이용자	정량호	한금현
금영수	김용직	노영훈	배위섭	오미순	이원중	정병갑	한선호
김건호	김용호	노익상	백승태	오 철	이재섭	정아영	한숙현
김건훈	김우상	노재경	백혜영	옥우석	이재원	정연태	한일봉
김경순	김 옥	노호식	서미해	왕 서	이정민	정영국	한정원
김관호	김 원	노환길	서봉교	우병익	이정은	정영진	한준희
김국형	김월명	노희열	서상민	원종숙	이정호	정원철	한지현
김기정	김유상	라종일	서영민	원종애	이종수	정재호	한하람
김기준	김윤희	류길재	서용주	유문중	이종진	정 준	한홍일
김남이	김은숙	류재희	서은숙	유성수	이지원	조규완	현정은
김 담	김은영	마금희	서의석	유옥상	이지희	조동현	홍선근
김동건	김인섭	마정재	서창식	유창수	이창현	조상호	황석희
김동은	김인혜	문성환	선승훈	육은경	이충형	조성재	황성진
김만호	김재두	문윤성	성정은	윤상민	이태석	조은희	황 수
김미영	김정수	문지욱	소치형	윤용집	이 항	조홍식	황의숙
김병국	김정은	문진성	손재키	윤혜성	이해완	주미야	황정원
김병표	김 준	민병문	송대창	은종학	이현옥	주영아	황효진
김부용	김준희	민선식	송우엽	이규호	이홍구	주진균	
김상기	김지정	민선영	송원진	이 근	이홍규	주 한	
김석우	김지현	민지숙	송지연	이근우	이홍미	지만수	
김석준	김진기	박규호	송홍선	이내영	이효재	진선희	
김석진	김진영	박근아	신권식	이달원	이희정	진지운	
김철화	김진혁	박대균	신동원	이동욱	임명수	차국린	



EAI
EAST ASIA INSTITUTE

동아시아연구원(EAI)

Tel. +82-2-2277-1683

Fax. +82-2-2277-1684

<http://www.eai.or.kr>